패션업계 올파구 복합 매장

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3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삼성 vs 넥센 누가 웃을까

수능 D-10 간절한 기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1일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법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뉴시스

IPTV 계륵 아닌 효자로 진화

오랜 침체 벗어나 가입자 급증으로 수익성 날개
고화질 영상에 결합 상품 주력 마케팅 전략 주효

통신사업자 내부에서 계륵 같은 존재였던 IPTV가 서서히 날개를 펴고 있다.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면서 사업적으로도 수익을 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IPTV는 전국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며 케이블TV 사업자를 위협하고 있다. 가입자 저조로 실적이 부진하던 IPTV는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3분기 IPTV 사업 매출이 12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6% 증가했다. IPTV 부문은 가입자 기반 확대와 유료 콘텐츠 이용률 증가에 따른 플랫폼 매출 향상으로 최근 3년간 매출 평균 성장률이 43%에 달한다.

특히 3분기에만 IPTV 가입자가 18만9600명 순증해 누적 가입자가 260만명을 기록했다. 모바일 IPTV 서비스인 Btv 모바일 도 누적 유료 가입자 232만명을 확보했다.

KT 역시 3분기 IPTV 성장에 힘입어 미디어·콘텐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8% 성장한 3961억원을 달성했다. KT의 IPTV 서비스인 올레tv 가입자는 3분기에만 27만명 순증을 기록하며 총 563만명의 가입자를 유지했다.

올레tv는 지난 8월 주문형비디오(VOD) 월 플레이 수가 3억회를 넘어서는 등 이용횟수도 급증하고 있다. 전체 VOD 이용 비중에서 유료 VOD 가 19%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는 모습이다. 올레tv의 영구소장 프리미엄 VOD 서비스 '클라우드DVD' 매출에서도 올해 1~7월에만 74억3000만원의 콘텐츠 매출을 거두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의 3분기 실적 호조에도 IPTV가 크게 기여했다. 3분기 IPTV 수익은 VOD, 홈쇼핑 등 부가서비스 수익 증대와 'U+tv G 14 요금제' 등 신규 유치율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한 1000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한 187만5000명을 달성했다.

IPTV 사업의 성장에는 결합상품을 주력으로 한 마케팅 전략도 한 몫 했다. 최근 통신업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보조금 규제 등 제약을 받자 결합상품을 주력으로 판매에 나서고 있다. 9월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 IPTV에 동시 가입한 비율은 SK브로드밴드 55.1%, KT 69.5%, LG유플러스 62.3%에 달한다. 최근 이동통신과 결합한 상품이 출시되며 그 비중도 보다 커지고 있다.

서비스 면에서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 통신업계는 IPTV 전용 초고화질(UHD) 셋톱박스를 개발,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IPTV 전용 UHD 셋톱박스 출시로 고객들은 보다 개선된 화질의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

N스크린 서비스 역시 IPTV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모바일 IPTV 서비스 가입자도 급증하며 현재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IPTV는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서 고화질의 실시간 방송과 VOD를 시청할 수 있어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IPTV 서비스의 가입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통신업계의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향후 VOD 수요 증대, 모바일 IPTV 이용 급증, UHD 셋톱박스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내년에도 IPTV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전세대출 사상 최대 연말 35조

렌트 푸어 양산 우려

올해 전세대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2011년 말 18조2000억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은 2012년 말 23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말 28조원, 올해 8월 말 3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4조8000억원이 늘어나 연말까지 7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전세대출은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한 해에 무려 25% 증가한 것으로, 올해 10월까지 아파트 전셋값 평균 상승률인 3.65%에 비해 상당히 높다.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셋값이 1억5000만원일 때 10% 올라가면 1500만원만 마련하면 되지만 3억원일 때 10%는 3000만원에 달한다"며 "2년 만기가 돼 재계약하는 기존 세입자, 새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 등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3.65%지만 2년 만기 후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률(7.15%)까지 더해 전셋값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는 속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 되면서 '렌트 푸어(전세 빈곤층)'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삐라살포 중단 없인 대화 없다"

북한 조평통 성명… 2차 남북고위급 접촉 사실상 무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어떤 남북간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에서 '위임'에 따라 '중대 입장'을 천명한다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 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 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평통 성명은 조평통이 내놓는 최고 수위의 입장 표명이다. 북한은 '위임'이라는 표현으로 이번 성명이 최고지도자의 뜻에 따른 것임을 밝혀 무게를 더했다.

성명은 탈북자단체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사실을 거론하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삐라 살포 망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비호, 두둔, 조장하는 자들과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대북전단 살포)은 괴뢰패당이 운운하는 것처럼 회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담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이며 중핵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이 남북간 대화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북한에 대한 강한 유감과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달 초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다혜기자 jdh@metroseoul.co.kr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내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여 "확장 예산으로 경제 불씨" 야 "빚더미 재정 파탄 부른다"

이번주 예산심사 격돌

여야가 이번 주 대정부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세월호법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대정부질문과 이번주 중반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대로 여야가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6일에는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여당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원년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다.

현재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또는 '지방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담정은 담뱃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었다.

/정다혜기자

뉴스&뉴스

감사원,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 특감

● 감사원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실태 전반에 대해 6년 만에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2일 감사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6일부터 국방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그 산하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를 감사하고 있다.

해군, 함성 근무자 전투복·전투화 개발 추진

● 해군은 2016년 보급을 목표로 해상 전투복 및 전투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군은 현재의 전투복과 전투화로는 전투력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해 초부터 해상 전투복과 전투화 시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해상전투복에는 함정과 해상 색상에 부합되는 위장색을 적용하고 난연 기능과 발수·발유 기능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범죄 200만건 넘어… 전년비 3.2%↑

●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이 전국 각급 수사기관의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한 '2014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범죄건수는 200만6682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921건꼴이었다. 지난해 전체 범죄건수는 전년(194만4906건)에 비해서는 3.2% 증가했다.

청년위원회 제2기 2030정책참여단 발대식 2일 서울 종로구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제2기 2030정책참여단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30정책참여단은 청년일자리,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청년 이슈 현장을 찾아가 청년 눈높이에서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제시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경제혁신·규제개혁 '세일즈 외교'

9~16일 APEC 등 참석 아베와 회담은 물건너가

박근혜 대통령은 9~16일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과 미얀마, 호주를 방문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2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박 대통령 순방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제22차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12일 베이징을 방문한다. 이어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와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12~13일까지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APEC과의 대화에서 다른 3개국 정상과 함께 역내 기업인들에 제기하게 될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질문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및 규제개혁 등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소개한다.

또 정상회의 세션에서 아·태지역의 미래질서 구축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강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APEC 발전에 기여하는 등 의지를 공고히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반도 지역정세와 양국 FTA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한일관계 악화를 고려하면 APEC 정상회의 기간 등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귀국한다.

/정다혜기자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 잠수함 진수

북한이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이미 건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일 "북한이 러시아가 1958년 건조해 1990년까지 운용한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수입해 해체,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최근 진수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할 가능성을 제기해왔지만 실제 이 잠수함이 건조된 사실이 우리 정부 관계자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앞으로 신형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장착하게 되면 사전에 미사일 발사 여부를 탐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나 '킬 체인'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조한진기자

공공기관 연봉 톱 한국거래소

1인당 1억1244만원 — 경영실적 평가는 '최하'

국내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한국거래소가 경영실적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302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거래소로 1억1244만원이었다.

2~10위는 ▲한국예탁결제원(1억100만원) ▲신은금융지주(1억원) ▲한국원자력연구원(9873만원) ▲한국기계연구원(9867만원) ▲한국투자공사(9812만원) ▲코스콤(967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9637만원) ▲전자통신연구원(9540만원)이었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3개 기관은 금융위원회 산하였다. 9000만원을 넘는 기관은 13개였으며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 9곳이었다.

특지만 고액 연봉을 받은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큰 빚을 안고 있어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위인 한국거래소는 2013년도 전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고, 2위 한국예탁결제원은 D등급이었다. 3위 신은금융지주는 2013년도 당기손실이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고액의 연봉을 받은 공공기관 상당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막대한 빚더미를 안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과도한 연봉 챙기기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설악산 올 가을 두번째 눈 2일 오전 8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청봉과 중청봉 등 설악산 고지대에 눈발이 날렸다. 올가을 설악산 눈발은 지난달 1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

"정규직 회피용 '쪼개기 계약' 방지책 마련"

이기권 고용부장관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이라는 것은 결혼 다음으로 사람 간의 소중한 약속이다. 지나친 쪼개기 계약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에 대한 보완책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거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첫 일자리를 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주가 이런 청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이들이 기업에 반감을 가지는 등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쪼개기 계약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씩 계약을 맺고 연속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사업주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말한다. /윤다혜기자

"뺑소니 무죄 가해자 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차량 운행에 주의를 다했다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장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씨와 부인에게 총 29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 등은 2010년 6월 김 모 씨의 차량에 치여 다쳤지만 김씨의 보험사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뺑소니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일 뿐 김씨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은 인정된다며 장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윤다혜기자

청해진해운 임직원 신문 마무리 선고 최고형이 징역 5년에 불과

6일 결심공판 주목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신문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은 6일 이 사건의 피고인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한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장, 물류팀 차장, 해무팀장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 씨,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 사고 당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과 운항관리자 등 모두 11명이다.

공통으로 적용된 죄명으로 분류하면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선장 신씨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우련통운 직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운항관리실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기세로 미뤄 검찰이 또다시 중형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5년에 불과하다.

더욱이 직위나 권한, 책임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구형할 수도 없어 검찰이 징역 5년이라는 좁은 선택폭을 두고 각각에게 어떤 구형을 할지 주목된다. /윤다혜기자

차세대 무인 지하철 임박

metro Russia

Машинист в метро будет не нужен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엑스포시티트란스-2014' 박람회에서 차세대 무인운전 지하철이 공개됐다.

러시아 최대 교통설비제작업체인 트란스마쉬홀딩이 개발한 무인 지하철은 사이버운영스크린으로 지하철 내부는 물론 외부 움직임까지 모두 통제할 수 있다.

트란스마쉬홀딩 관계자 필립 알렉산드로프스키는 "기존 지하철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사들은 직접 상황실과 연락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 7분이 소요된다"며 "무인 지하철에서는 그 시간을 2~3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무인 기관사 시스템을 전 지하철 구간으로 적용·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형 지하철 개찰구도 박람회에서 눈길을 끌었다. 특수 유리문으로 제작된 신형 개찰구는 표를 넣으면 양쪽으로 개찰구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알렉산드로프스키는 "개찰구의 유리문이 높고 단단해 뛰어넘을 수 없다"며 "'토끼'라고 불리던 무임 승차자들은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골로브첸코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파리 시민 80% "대기오염 심각"

metro Paris

파리 시민 10명 중 8명은 파리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폽(Ifop)이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수도권 거주자 83%가 파리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91%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이유로 꼽았으며 공장 유독가스 배출(88%), 살충제 사용(87%)이 뒤를 이었다.

설문을 의뢰한 대기오염관리기구 에어파리프는 "이번 조사는 "건강에 조종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9%의 응답자가 대기오염을 이유로 건강에 이상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다고 답했다.

/마리스 델 라부디 기자 ·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지원 유세 나선 미셸 오바마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 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블린에서 민주당 상·하원의원과 주지사 후보들을 위한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오바마 레임덕 빠지나

미 중간선거 여론조사서 공화당 우세 예상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11·4 중간선거가 조박빙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선거 전문가와 정치 분석가들은 일단 공화당이 유리한 판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435명(공화 233석, 민주 199석, 공석 3석) 전원을 새로 뽑는 임기 2년의 하원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100명(민주 55석, 공화 45석) 가운데 36명을 교체하는 임기 6년의 상원의원 선거 역시 공화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원의 승패는 내년 1월에나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상원 선거가 치러지는 36곳 중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구는 13개로 공화당이 현역인 곳이 3개, 민주당이 현역인 곳이 10개다. 이 가운데 몬태나,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 아칸소는 사실상 공화당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많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양당 후보들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문제는 초접전을 벌이는 루이지애나와 조지아 주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에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메리 랜드류 상원의원과 공화당 빌 캐시디 하원의원이 맞붙은 루이지애나 주는 초박빙 대결 속에 양측이 이미 12월 6일 결선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가까스로 다수 의석을 지키는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반도 정책 변화없을 듯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8년 만에 명실상부한 여소야대 정국이 도래하게 된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점유한 외교위, 군사위, 세출위, 금융위 등 슈퍼 A급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빼앗는 등 지도부 개편이 뒤따른다.

중간선거가 끝나면 남은 2년간 업적을 쌓아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공화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각종 현안에서 극한대치 정국을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협상과 대화를 통해 세제, 에너지, 이민개혁 등 여러 부문에서 그랜드바겐(대타협)이나 빅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한·미 관계나 오바마 행정부나 의회의 대북한 또는 한반도 정책 및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희철기자 kmlee@metroseoul.co.kr

IS, 이라크서 적대 수니파 50명 총살

"정부에 알렸으나 무시" 시체 매장 현장 발견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에서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수니파 부족을 또 집단 학살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IS는 점령지인 안바르주 히트 마을에서 전투를 벌이다 투항한 알부-님르 부족 50명을 전날 총살했다.

이들은 IS를 피해 사막을 넘어가던 도중 붙잡혔다. 희생자 가운데 남성이 40명, 여성과 어린이가 10명이었다고 이 부족 대표는 이라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IS가 안바르주에서 수니파 부족을 집단학살할 것이라고 이라크 정부에 알렸지만 무시당했다"면서 "IS는 박격포와 기관총 등으로 무장했지만 우리는 기관총 서른 자루를 지원받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IS가 현재 히트마을 북쪽에서 알부-님르 부족 500명을 뒤쫓고 있어 집단 학살이 또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안바르주는 수니파 거주 지역으로 이달 초 IS가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곳에는 IS에 계속해서 저항하는 수니파 민병대가 있다. 시아파 중심인 이라크 정부는 종파적인 이유로 이들의 군사적 지원에 소극적이다.

이번 집단 학살에 앞서 수니파 부족으로 보이는 시체가 집단 매장된 현장도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안바르주 히트 마을과 라마디 북쪽 등 두 곳에서 알부-님르 부족의 시신 220여구가 집단매장된 장소가 발견됐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조선미기자

"명품 헤드폰 증명하겠다"

응지순 젠하이저 아시아 대표 겸 한국지사장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젠하이저 제공

젠하이저 어반나이트 레드

IT Cafe

젊은층 위해 디자인·저음 비트 차별화

■응지순 젠하이저 아시아 대표

비츠바이닥터드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젊은층이 선호하는 헤드폰 브랜드다. 국내에서는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이 애용해 '박태환 헤드폰'으로도 불린다.

그런데 비츠바이와 글로벌시장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독일 브랜드 '젠하이저'가 견제에 나섰다. 비츠바이처럼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채용하고 쿵쾅 쿵쾅 등 비트가 강한 음악에 적합한 성능을 지닌 '어반나이트'를 지난달 출시했다.

그간 젠하이저는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범용 제품 생산에 골두해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한 응지순(Ng Chee Soon) 젠하이저 아시아 사장 겸 한국지사장을 국내 일간지 중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싱가포르 출신인 응사장은 젠하이저 가문이 3대째 경영을 맡고 있는 이 회사에서 몇 안되는 비독일인 임원이다. 그는 "한국에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쓴 사람이 정말 많다"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독일 기업은 보수적인 경우가 많은데 어반나이트 출시는 의외다.

–올해 브라질월드컵 우승팀인 독일을 보면 보수와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웃음). 젠하이저는 성숙한 계층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도 젊은층을 사로잡아야 한다.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했다는 뜻의 이름을 지은 이유다.

–평범지와 잘 어울리는 컬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를 주로 쓴 일반 제품과 달리 면과 가죽 비율이 높다. 이에 어울리는 20여 컬러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테스트했고 데님 소재에는 중립적인 색깔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청바지를 가장 많이 입는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디자인을 제외하면 대표 상품인 '모멘텀', '모멘텀 온이어'와 어떻게 다른가.

–어반나이트는 풍성한 베이스 사운드를 구현한다. 그렇지만 중고음이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다. 도시의 2030 세대가 타깃인 만큼 떨어나 끝에 견디는 능력을 키웠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급적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케이블에도 실리콘을 입혔다.

–비츠바이를 겨냥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젠하이저는 유럽 1위 브랜드다. 우리가 비츠바이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 비츠바이도 훌륭한 브랜드이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두 제품을 직접 비교해 보기 바란다. 미국 IT 매체에서는 벌써 어반나이트가 비츠바이 킬러가 될 것이란 리뷰가 속속 나오고 있다.

–비츠바이의 박태환처럼 유명인을 알리미로 쓸 계획이 있는가.

–돈이 많이 든다. 젠하이저는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에 쓴다. 비욘세와 같은 톱스타도 우리 제품을 직접 사서 썼고 그로 인해 젠하이저가 유명해졌다.

/박상훈기자 gen@metroseoul.co.kr

"보일러 난방비 절약하세요"

'입동' 앞두고 경동나비엔 4가지 제안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7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예년보다 일찍 한파주의보를 내린 지역이 있을 정도로 이른 추위에 난방을 하는 가정이 늘어났다. 일찍 다가온 추위만큼 늘어나는 난방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알뜰한 보일러 사용법만 알고 있어도 난방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안 쓰는 방 밸브는 잠그기

분배기에서 안 쓰는 방의 밸브를 잠그고 방문을 닫아 불필요한 열 손실을 방지한다면 보일러가 가열하는 난방수량 및 면적이 줄어 비용이 절감된다. 단 난방수 유량이 과도하게 부족할 경우 보일러가 잦은 on/off를 반복해 난방 효율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분배기의 방 밸브는 최소 2개 이상 열어 두는 것이 좋다. 개별 보일러가 아닌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안 쓰는 방의 밸브를 잠그고 주 차단 밸브를 조절해 전체 유량을 낮춰야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

◆정기적으로 난방 수 교체하기

바닥에 흐르는 난방수의 정기적인 교체도 난방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 오랜 시간 난방수를 사용할 경우 미네랄 침전물 등의 노폐물이 포함돼 난방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된다. 1년에 한번 고여있는 난방수를 교체해주면 난방 효율은 크게 올라간다.

◆잠시 외출 시에는 보일러 끄지 않기

2~3시간 잠시 외출할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2~3℃ 낮게 설정하고 보일러 전원을 켜놓는 것이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따뜻해진 바닥을 유지하는 것보다 바닥이 차가운 상태에서 난방을 가동하는데 많은 시간과 연료비가 들기 때문이다.

◆새는 열을 잡아라

문풍지와 뽁뽁 비닐을 사용해 창 틈과 현관문 틈으로 새어 나가는 열을 차단하면 난방비를 최소 1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햇볕이 드는 시간이 아니라면 창을 통해 외풍이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을 치는 것이 실내온도를 지키는데 효율적이다. 바닥에 카펫이나 담요를 깔아 두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아 주고, 반대로 난방 후 잔열을 오래도록 유지시켜 준다.

보일러업계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본격적인 보일러의 계절 겨울이 오기 전 가을에 미리미리 보일러를 점검해야 한다"며 "보일러를 꼼꼼히 살펴보고 노후된 부분은 없는지, 정상 작동은 잘 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1588-1144

/정은룡기자 rich@

두산인프라, 伊 공작기계 판매 1만대↑

두산인프라코어가 이탈리아에서 공작기계 누적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 총 생산량은 약 1만2000대로 이탈리아 시장에서만 1만대 판매를 돌파한 것은 회사 연간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자동차·기계 산업 강국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공작기계 시장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991년 이탈리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영업망 확대, 우수한 서비스, 고객 맞춤형 제품개발 등을 통해 2006년 이후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현지 지역 딜러와 함께 정기적으로 고객 니즈를 분석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이탈리아 내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용기자

삼성전자, 북경에 첫 '갤럭시 라이프 스토어'

삼성전자가 중국 회사들에 내준 스마트폰 시장을 되찾아오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다.

삼성 갤럭시 라이프 스토어는 모바일 기술과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마케팅 플랫폼으로, 젊은 층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소비자들은 여기서 갤럭시 노트4를 활용해 무료 커피를 주문하고 갤럭시탭S로 잡지를 보는 등 편안하게 삼성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다. /정성훈기자 ysw@

market index <31일>

코스피 1964.43 (+5.50)
코스닥 558.70 (+0.84)
금리 2.14 (-0.08)
환율 1067.50 (+10.20)

삼성 '이재용 체제' 본격 구축

'지배구조 정점' 제일모직 내달 18일 상장…지분 25%로 최대 주주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의 기업공개(IPO)가 임박하면서 재계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어 기업공개 자체가 삼성은 물론 국내 재계의 빅 이슈다.

여기에 삼성SDS의 공모가가 지난 31일 19만원으로 확정돼 삼성 오너가 중 지분이 가장 많은 이 부회장의 재산은 단숨에 1조6500억원이 불었다.

2일 재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다음달 18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희망 공모가는 4만5000~5만3000원으로 결정됐다.

총 공모 주식 수는 2874만9950주로 이 가운데 신주 발행 물량은 1000만주, 나머지 1874만9950주는 구주 매출 물량이다. 구주 매출에는 제일모직 주요 주주인 삼성카드, 삼성SDI, KCC가 참여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지분 25.10%를 보유해 최대주주이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각각 8.37%를 가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 지분은 3.72%다.

제일모직이 공모 희망가로 4만5000~5만3000원을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최상단 기준으로 공모 규모는 1조5200억원에 달한다.

이 부회장의 제일모직 지분 가치는 1조6600억원이 넘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의 보유주식 가치도 [illegible]에 이른다.

제일모직은 상장 후 지주회사가 돼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제일모직 상장의 흥행을 터뜨릴지는 삼성SDS가 오는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어떻게 안착하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SDS의 공모가가 높은 경쟁률 덕에 19만원으로 결정된 만큼 제일모직도 이변이 없는 한 증시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 확정가를 고려한 삼성SDS의 예상 시총 규모는 12조~14조원 수준이며 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13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 움직이 본격화하면서 삼성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했다.

지난 31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5.33%(6만3000원) 오른 124만4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120만원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9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삼성SDI는 4.13%(5000원) 오른 12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물산은 7만2300원(5.09%↑), 삼성생명은 11만6500원(4.48%↑)을 기록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뉴스&뉴스

쇼킹딜11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모델들이 '쇼킹딜11시'를 알리기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공공기관 일자리↑

공공기관이 일자리 늘리기에 적극 나선다. 특히 병원·전력 분야 공공기관 채용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302개 공공기관이 1만7187명 신규 채용에 나서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채용규모(1만6701명)보다 2.9%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병상 시설이 늘어나는 국립대병원과 국내 발전소 시설 확대와 UAE 원전 사업량이 증가하는 전력 공기업 등이 신규채용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1276명)과 한국전력공사(1000명), 경상대학교병원(935명), 부산대학교병원(928명), 서울대학교병원(7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639명), 강원랜드(518명) 등이다.

반면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에 따라 자체 인력을 줄이는 철도공사, 기초노령연금 사업 등 신규사업의 인력 확충이 완료되는 국민연금공단 등은 올해보다 채용 규모가 줄어들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kmlee@

이색복장으로 63계단 올라요! 2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제12회 63계단오르기 대회에서 이색복장으로 참가한 선수들이 출발 전 카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홈쇼핑 강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말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다"며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니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밝혔다. 신 처장이 언급한 6개 홈쇼핑 업체는 GS, CJ,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이다.

신 처장은 이번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가 2012년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했다"며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김민준기자 mjk@

로또복권 제625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6	15	16	21	23	34	2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062,384,292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74,926,160
3등	5개 숫자 일치	1,501,472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 회 편 집 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4~5
독 자 센 터 02)721-9891
2005년 8월 24일 창간 / 일간(화~금) 서울특별시 가00000

아이폰6 1·2·3호 구매자 "불쾌하다"

프리스비 명동점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 해놓고 '몰라라'

애플 판매점 프리스비 명동점이 지난달 31일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출시 기념 이벤트 '얼리버드'를 진행했지만 되레 소비자를 농락하는 행사로 전락했다. 이날 프리스비가 평소보다 3시간 일찍 매장을 열고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착순 판매에 들어가면서 3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프리스비는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다리는 것을 하나의 '축제'처럼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전 8시30분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아이폰을 구매한 고객들이 행사를 진행하던 프리스비 직원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프리스비 측은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매장을 찾은 1호 구매자 권

31일 아이폰6 플러스 출시 행사가 열린 프리스비 명동점에서 기자들이 1호 구매자를 취재하기 위해 모여 있다.

모씨(26) 에게 언론 대응을 위한 몇 가지 매뉴얼을 알려주며 "다섯 번째 구매자까지는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1호 구매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하고 제품 구입 후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등 프리스비 측의 요구를 충실히 따랐다.

문제는 프리스비 측이 처음 약속과 달리 추가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이 가장 먼저 구매한 사람들을 위한 사은품에 대해 프리스비 직원에게 문의하자 이 직원은 "아직 본사 측의 지시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알아보니 처음부터 선물을 주기로 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프리스비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먼저 구매한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프리스비 측이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주겠다는 등의 내용의 언론 보도는 없었다. 그러나 전날 고객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며 협조를 부탁했던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다.

이날 이 매장에서 세 번째로 아이폰을 구매한 이모씨(26) 에는 "애초부터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꾸 말이 바뀐 것이 가장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면서 거짓말로 일관한 행사가 어떻게 축제가 될 수 있겠나"라며 강하게 불만을 터뜨렸다. 잠시간 고생하며 제품을 기다린 충성도 높은 고객을 직원들이 행사의 세부 사항까지 숙지하지 못한 채 응대하면서 오해를 부른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정혜인기자 hjung0454@

"2년 내 리딩뱅크 회복위해 혼신"

윤종규 KB 회장 내정자, 인재발탁 · 지배구조 대책등 밝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2년 내 리딩뱅크 회복'이라는 향후 경영구상 밑그림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윤 회장 내정자는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공식 추천된 뒤 KB금융과 '경영고문'으로 계약했다.

그는 서울 명동 KB금융 본사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계열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조직운영과 경영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윤 내정자는 최근 윤웅원 KB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과 박지우 KB국민은행장 직무대행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에서 "2년 안에 리딩뱅크를 회복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당장 KB의 위상을 회복하고 글로벌 뱅크로 도약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KB가 겪은 일련의 악재로 직원 사기는 물론 고객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고객 신뢰 회복도 급선무다.

윤 내정자는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두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출신이나 인고를 묻지 않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을 보고 공평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쓸데없는 청탁은 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청탁한 이는 수첩에 기록하고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못박았다.

국민·주택은행 출신 간 파벌싸움은 KB금융 내부에서 빚어진 여러 문제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당연한 위기를 극복하고 리딩뱅크로 도약하기 위해선 실력 위주의 인재 발탁이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수익성 역시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다. 국민은행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지주사 가운데 실적 면에서 가장 앞서는 신한금융을 경쟁자로 꼽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신한금융의 자산은 335조원으로 국내 은행지주사 중 1위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KB금융은 301조7000원에 그쳤다. 수익 또한 신한금융에 뒤처지고 있다.

밝은 표정의 윤종규 KB회장 내정자 [illegible]

이와 함께 LIG손해보험 인수도 시급하다. KB는 LIG손보 인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차기 회장 선임이 완료되고, 경영정상화 방안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 이르면 이달 말 인수 승인을 결정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B의 경영 안정화 모습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며 "시간이 지체되면 부담이기 때문에 이달 말 내에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KB금융은 지난달 28일부터 LIG손보 대주주 측에 하루 1억1000만원씩의 계약실행 지연 이자를 물고 있다.

만약 승인이 한 달 이상 지체되면 KB금융은 최소 33억원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윤 내정자는 LIG손보 인수 문제도 이달 중에 매듭짓기 위해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llegible]

금감원 Q&A

연체로 해지된 보험 살리려면

Q 통장 잔액이 부족해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지 않아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효력을 되돌릴 수 있나요?

A 최근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통장 잔액 부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료가 연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두 달 연속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실효되기 2주 전(14일 이상) 이런 내용을 알리고 적법하게 계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가 해지일로부터 2년 안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종전 계약의 효력을 살리도록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살아나더라도 이전 해지된 시점부터 부활 시점까지 발생했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평소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늘 신경써야 합니다.

/[illegible]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따뜻한 손길 신한은행 호남본부 조영근 본부장(왼쪽 첫 번째)과 굿윌스토어 전주점 한경석 전북 비번째 대표, 신한은행 노동조합 이도환(왼쪽 다섯 번째) 국장이 굿윌스토어 전주점 개점식에 기부물품 수거용 탑차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llegible]

불완전 판매율 높은 'GA' 규제

금감원, 상시감시체계 구축 현장검사 실시

금융당국이 최근 규모가 커지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현재까지 GA의 경우 불완전 판매율이 높지만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아 적절한 규제방안이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지표'를 개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계사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GA의 지난해(3~12월) 신규 보험 판매액은 23조3430억원으로 전체 보험 판매액의 36.6%를 기록했다.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9월 이상징후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핵심지표 7개와 보조지표 4개의 '감시지표' 개발을 완료했다.

이 지표는 우선 보험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GA의 영업부문을 보험계약 모집,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문으로 구분해 불완전판매, 경유계약, 부당 수수료 지급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위 지표에 따라 금감원은 각각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 GA 중 하위 30%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소명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핵심지표가 다수인 대형 보험대리점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꼽고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형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분기 감시지표 분석과 상시감시체계 전산화 작업도 추진된다.

/[illegible]

금융지주 3분기 실적 '선방'

신한 1위 질주 … 하나 고전

신한·우리·KB 농협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0.79% 증가한 6320억원을 기록, 금융지주 가운데 수익성 1위를 질주했다. 이는 전분기보다 9.42% 늘어난 규모로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은 1조7680억47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 1, 2분기에도 5000억원이 넘는 순익을 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조5507억76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5.6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8329억4900만원으로 5.68%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측은 "장기적인 이익 개선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통한 대손비용 감소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5.8% 늘어난 1810억2900만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순이자마진(NIM)은 하락했지만 대손비용이 줄고 일회성 비용 등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카드사 정보유출과 경영진 내홍 등을 한해 각종 악재를 겪은 KB금융그룹도 전년동기 보다 6.93% 오른 4561억4600만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KB금융의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은 1조2214억원이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2.0%, 2199억원 개선됐다"며 "이는 자산건전성 개선에 따라 3분기 누적 신용손실충당금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1950억원)하고 지난해 있었던 교환주식 손상차손(1206억원) 등 일회성 비용이 소멸된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NH농협금융의 약진도 눈에 띈다. 농협금융의 3분기 순이익은 17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0.5% 확대됐다. 올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또한 7030억원으로 작년 3분기의 2898억원 대비 142.6% 커졌다.

반면 하나금융그룹만 유일하게 감소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나금융은 3분기 순익이 3922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4.2% 감소했다. 이는 주력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수익이 감소한데 따른 영향이 컸다.

/[illegible]

외국인 자본이득세 출범 '지체'

애매한 과세 기준 … 홍콩 시위 '견제' 분석도

Issue & View

후강퉁 제도 급제동 왜?

/김현정기자 hk [illegible]@metroseoul.co.kr

이달 안에 시행되리라 기대됐던 후강퉁 제도가 돌연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외국 기관투자자에 대한 중국 증시 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서부터 한 달째 이어지는 홍콩 도심점거 시위에 대한 당국의 '견제' 신호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후강퉁 시행 전에 국내 금융당국 역시 중국 본토투자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강퉁 제도는 중국 상하이증시와 홍콩 증시간 주식 교차거래를 허용한다.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시장에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제도와 맞물려 중국 자본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을 목표로 한다.

후강퉁은 지난 4월 공식 실시가 발표됐으며 당시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 제도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됐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후강퉁으로 다양해질 중국 투자에 대비한 포럼과 보고서 등을 분주히 마련했다.

그러나 홍콩증권거래소가 지난 26일 중국 증권당국으로부터 후강퉁 시행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런 기대감은 당혹으로 바뀌었다.

시장에서는 출범 지연의 주 원인으로 중국 증시의 외국인 과세 부분과 홍콩 시위로 인한 혼란을 지목했다.

특히 외국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물리지 않는 홍콩 증시와 달리 상하이 증시는 1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점이 주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이 부분이 해소돼야 상하이-홍콩간 교차거래에서 발생가능한 혼란이 잠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금융당국 고위층이 수 차례 회담을 통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구두상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공식 발표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자본이득세 문제는 국내 금융당국도 풀어야 할 숙제로 안고 있다.

현재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제도를 통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펀드는 중국 증시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면제되는 반면 다른 펀드들은 그대로 과세된다.

따라서 향후 후강퉁이 시행되더라도 중국 본토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기준이 확립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금융당국이 후강퉁이 시행되기 전에 연내 이런 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후강퉁 시행을 마냥 미루진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SBI저축은행 통합법인 출범식 SBI저축은행은 지난 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SBI 1·2·3·4 등 계열 저축은행과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법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통합법인은 지난 9월 말 기준 자산 규모 3조8443억원으로 저축은행업계 1위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4%다. 김종욱(사진) SBI저축은행 대표가 이날 통합선포식에서 활듀를 하고 있다. /SBI저축은행 제공

'튼튼 직장인 대출' 출시 NH농협은행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상품인 'NH튼튼 직장인대출'을 출시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우량기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연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고 1억3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금리는 30일 기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저 4.21%까지 가능하다. /농협은행 제공

김장 담그는 계절, 재료 고르는 법

전순이 주부 경제학

예나 지금이나 겨울이 시작되면 주부들의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김장'이다. 주부들은 '김장'이란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부담스럽다. 배추김치, 깍두기, 동치미 등 손 많이 가는 김장은 결코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선 일단 좋은 재료가 필요하다. 좋은 김장 재료 고르는 법을 알아보자.

'배추'는 김치의 가장 중요한 재료다. 배추는 푸른 겉잎이 붙어 있고, 싱싱해 보이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겉잎을 떼어낸 배추는 대부분 수확한 지 오래된 것이 많다.

배추를 들어봤을때 묵직하고 밑동을 눌러 속이 꽉 찬 배추가 좋다. 맛배추는 묵직하고 큰 것으로, 가을배추는 중간 크기인 것으로 고르자. 배추 크기는 너무 큰 것보다는 3kg 정도가 적당하다.

밑동과 윗부분의 굵기가 비슷하고, 뿌리쪽의 잎이 너무 두껍지 않아야 좋다. 잎의 색이 진한 녹색이고, 뿌리쪽은 하얀 것이 싱싱하다. 또 배추 속잎을 먹어봤을때 달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좋다.

'무'는 김장 속을 만들때 주재료가 된다. 좋은 무는 무청이 싱싱하고, 표면이 매끄럽고 속이 단단하다. 무청이 싱싱해야 수분도 많고, 맛도 좋다. 구입 직후엔 무청을 떼어내야 바람이 들지 않는다. 무를 먹어봤을 때 너무 맵지 않고, 적당히 아삭하면서 단 맛이 나면 좋다. 김장 속을 담글때는 통통하고 어른 주먹 크기의 무가 좋다.

대파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김치에는 '쪽파'를 더 많이 사용한다. 전체 길이가 짧고, 머리 부분이 통통한 것으로 선택하자. 굵기가 너무 굵은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고른 굵기이며 모양이 곧게 뻗어있는 파가 맛이 좋다.

'양파'는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신선하다. 끝 부분이 시들지 않고, 눌러봤을 때 단단한 것으로 고른다.

통 마늘은 껍질에 붉은 빛이 돌고, 쪽과 쪽사이 골이 뚜렷한 육쪽마늘이 좋다.

깐 마늘의 경우 지나치게 하얀색이 나는 것은 인공적으로 물을 들인 것도 있으니 피하도록 하자. '생강'은 껍질이 황갈색을 띠면서 얇고 마르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강의 경우 국산은 한 덩어리에 작은 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으며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칠하다.

김장할때는 굵은 소금과 꽃소금이 필요하다. 배추를 절일 때는 굵은 소금, 간을 맞출 때는 꽃소금을 사용한다. 간수가 덜 빠진 소금을 잘못쓰면 김치에서 쓴 맛이 날 수도 있다. 입자가 굵고 깨지지 않으며 손으로 만져봤을때 보송보송한 천일염을 사용하면 가장 좋다.

/김선지기자 [illegible]@

삼성카드 3분기 순익 783억원

작년比 12% 증가

삼성카드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783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11.73%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87% 늘어난 7663억69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영업이익은 12.05% 증가한 1026억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는 "순익이 삼성화재의 제일모직 주식매각 매각 이익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2분기 경상 당기순이익(738억원)과 비교했을 때 6.1%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지난 3분기 총 취급고는 전년 동기보다 7.5% 오른 25조1145억원으로 나왔다.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총 취급고는 72조1225억원으로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3분기 누계 경상 당기순이익은 2197억원이다.

카드사업 부문은 신용판매 증가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 증가한 24조9208억원에 달했다.

부문별로는 ▲신용판매(일시불+할부) 21조3073억원 ▲금융(카드론+현금서비스) 3조2396억원 ▲선불·체크카드 3133억원 ▲할부·리스사업 매출 1937억원을 기록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르포

■SK플래닛 '시럽'

"'시럽'있으면 쇼핑 즐거움 두 배!"

명동존 230여개 매장과 제휴…"고객·판매점 모두 윈윈할 것"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쇼핑을 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야말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SK플래닛의 시럽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을 찾았다. SK플래닛은 최근 222개의 소규모 제휴사와 10개의 대형 브랜드점 등 230여개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시럽 명동존'을 구축했다.

이날 방문한 시럽 명동존은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을 활용, 해당 권역에 들어선 고객에게 시럽 앱을 통해 시간, 장소, 목적에 맞는 혜택정보를 제공한다. 지오펜싱 기술은 GPS를 통해 가상의 울타리를 설정, 울타리 내에 사용자가 진입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기술이다.

시럽 앱을 설치한 고객들은 시럽 제휴 매장에 들어서면 저전력 블루투스(BLE)를 통해 해당 매장에서 제공되는 각종 이벤트, 할인 혜택을 자동으로 스마트폰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시럽 제휴 판매점의 경우 '시럽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다. 시럽 스토어는 매장 내 설치된 비콘을 통해 가맹점별 방문 고객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각종 오프라인 프로모션, 이벤트, 카탈로그, 전단지 등 디지털화해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한다. 비콘은 실내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위치를 파악해 BLE를 활용, 신호를 보내는 송신기를 말한다. 최대 50m 반경까지 통신을 제공하는 장점을 지녔다.

실제 이날 명동의 ABC마트를 방문하자 스마트폰에 스크래치 쿠폰 메시지가 확인됐다. 이를 보여주면 매장 직원이 쿠폰권을 발급해 주는 것이었다. 이 쿠폰권을 발급받아 고객은 쇼핑도 즐기며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부 커피전문점에서는 아메리카노 1+1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다. 단순히 스마트폰과 시럽 앱 설치만으로 알뜰한 쇼핑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럽 오더' 앱도 눈길을 끌었다. 시럽 오더는 모바일 선주문 서비스로, 앱만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자 주변의 제휴매장을 보여주고 고객이 원하는 매장의 상세 메뉴를 제공, 고객이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맞춤형 주문과 모바일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 시럽 오더를 활용하면 긴 줄을 설 필요없이 편리하게 커피전문점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시럽 서비스의 한계도 보였다. 현재 저전력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의 운영체제(OS)에 따라 시럽서비스 일부 기능에 제약을 받는다. 현재 적용되는 단말은 안드로이드 4.3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달 중순께 애플 iOS 7 이상의 단말에서도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영훈 SK플래닛 커머스사업부 매니저는 "시럽은 모바일과 오프라인 간 걸림돌이 없는 쇼핑을 가능토록 한 서비스"라며 "소비자는 시럽 앱 설치만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판매점은 다양한 광고 효과와 고객 관리가 효율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모두 '윈윈'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ly4403@metroseoul.co.kr

삼성·LG전자 연말 성수기 노린다

3분기는 실적 저조…시장·환율 하락 등 원인

큰 이익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성과를 내온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사업부가 이번 3분기에는 저조한 성적표를 내놨다. 3분기가 계절적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급락하는 등 예년에 비해서도 좋지 않은 실적을 냈다.

TV와 가전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CE부문은 3분기 매출액이 11조6000억원, 영업이익이 5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분기보다 93.9%, 전년동기보다 85.7%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LG전자 역시 TV사업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의 3분기 매출액이 4조71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전분기 대비 7% 줄었다. 영업이익은 1306억원으로 전 분기보다는 16%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5% 소폭 증가했다. 냉장고, 세탁기 등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의 매출액은 2조9115억원, 영업이익 518억원으로 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했다. 에어컨, 에어워셔 등을 판매하는 AE사업본부는 매출액 9256억원, 영업손실 25억원으로 적자 전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업계에서는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주요 선진시장이 블랙프라이데이 등 성수기로 진입하는 4분기에 수익성 개선을 노린다. 양사는 TV사업에서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을 통해 성수기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프리미엄급 선도제품을 출시해 실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가전의 경우 신흥시장에서는 지역에 특화된 제품을 내놓고 B2B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인기자 hiune04@

벌써 연말 분위기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강로동 아이파크백화점 리빙관 모던하우스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인테리어 장식 등 행탄 시즌상품 10% 할인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재벌 실적 부진에도 '곳간'은 넉넉

작년보다 16조 증가 125조원…"내년 경기 불투명 유동성 대비"

실적 부진 속에도 국내 10대 재벌이 보유한 현금은 오히려 늘어나 125조원을 넘어섰다.

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매출 기준 국내 10대 재벌이 보유한 현금자산(연결 기준)은 125조410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108조9900억원보다 15.1%(16조4200억원) 증가했다. 현금 보유액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단기매도 가능 금융자산) 등을 합친 금액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이 지난해 말 54조5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66조9500억원으로 22.9%(12조4600억원)가 불어나 가장 많은 금액이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53조4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9조7400억원으로 30.7% 급감했지만 현금 보유액은 늘었다.

현대자동차의 현금 보유액은 지난해 말 21조7500억원에서 9월 말 25조600억원으로 9개월 새 15.2%(3조3100억원) 늘어났다.

LG디스플레이도 올해 3분기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했으나 현금 보유액은 2조36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8%(400억원) 증가했다. LG전자와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등 3개사는 올해 실적 호조로 현금 보유액이 크게 늘었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의 3개사는 영업실적 급락 여파로 현금 보유액도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10대 재벌이 실적 부진에도 현금 보유액을 늘리는 것은 내년 경기 전망이 암울하고 불투명해 유동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취업 마지막 관문 '면접' 요령은…

하반기 취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면접 전형이 한창이다.

면접 유형 특징을 알면 효과적인 준비가 가능하다. 2일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에 따르면 면접 유형은 크게 개별 집단 토론 발표 임원면접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대일로 진행되는 개별면접은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주를 이룬다. 너무 짧게 대답하는 것은 불성실해 보이므로 심층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집단면접은 다대다 형식이므로 타 지원자들과의 차별화가 핵심이다. 답변은 45초 내외로 간결하면서 핵심 위주로 해야 한다. 다른 지원자가 답하는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도 중요하다.

토론면접은 경청과 자기주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토론 주제에 이탈하지 않으면서 풍부한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토론에서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발표 면접은 통상 5분에서 10분 이내로 진행된다. 발표 주제에 앞서 20초 이내로 자기 소개를 하면 좋다. 발표 내용에 대한 면접관 질문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면접의 최종 단계는 임원 면접이다. 임원면접은 인성 비중이 크기에 기업에 대한 열정에 중점을 둔 답변이 효과적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은평 뉴타운 엘크루 오피스텔 모집공고

분양문의 02)354-0300

뚜렷한 개성에 섬세함… 편의성 높였다

복고풍 외관에 강력한 4륜구동 성능 도심 주행도 편안한 승차감 인상적

엄의택의 차차차

■토요타 FJ 크루저

많은 완성차업체가 소형부터 대형까지 풀 라인업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고객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면 최대한 다양하게 제품을 갖추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틈새시장'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동차회사는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토요타가 지난해 말 선보인 FJ 크루저는 의미가 남다른 차다. 토요타의 수많은 차종 중에 한국에 선보인 모델들은 많지 않은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틈새시장을 노리는 FJ 크루저를 선보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FJ 크루저는 토요타의 정통 오프로더인 랜드크루저 FJ40을 물려받은 SUV다. 원형 헤드램프와 단순한 앞모습은 복고풍이 물씬하다. 험로 탈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앞뒤 오버행(범퍼 끝에서 바퀴 축까지 거리)은 최대한 짧게 만들었다.

차체의 길이×너비×높이는 4670×1905×1830mm로 현대차 싼타페보다 20mm 짧고 25mm 넓고 150mm 높다. 차체가 높은 데다 최저지상고가 244mm에 이르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을 전제로 설계됐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차체 때문에 차에 오르기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대시보드는 평범하지만 직관적인 구성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검은색 바탕에 흰색 눈금으로 이뤄진 클러스터와 큼직한 스위치들이 한눈에 확 들어온다. 험난한 조건에서 달리는 걸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트는 방수 재질로 이뤄졌다.

시동은 경쾌하고 출발은 가뿐하다. 엔진은 V6 4.0ℓ 자연흡기 가솔린 타입. 최고출력 260마력은 배기량에 비해 높지 않지만 큰 배기량 덕에 38.8kg.m의 넉넉하고 여유 있는 파워를 뽑아낸다. 5단 자동변속기의 연결감도 매끄러운 주행을 돕는다.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하지만 온로드 승차감도 기대 이상으로 좋다. 토요타의 고성능 파츠 'TRD'가 튜닝한 빌스타인 쇼크 업소버는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차체 균형을 매우 잘 유지시킨다. 앞 유리가 꽤 서 있는 타입이지만 고속주행에서 예상보다 소음이 적다.

접근각은 34도, 이탈각은 31도로 설계됐다. 웬만한 험로도 달릴 수 있는 제원이다. 게다가 저고 조절 없이도 수심 700mm까지 돌파할 수 있다. 리어 디퍼런셜 락은 후륜의 어느 한쪽이 헛도는 경우에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좌우 바퀴 구동력을 50:50으로 잠글 수 있는 기능이다. 덕분에 도심형 SUV와 비교할 수 없는 오프로드 주행성을 자랑한다. 4륜구동은 파트타임 방식이고, 기어 레버 뒤에 있는 트랜스퍼 레버로 2륜 고속, 4륜 고속, 4륜 저속을 선택하도록 했다.

FJ 크루저는 프레임 타입이면서도 온로드 주행이 쾌적했다. 비슷한 콘셉트의 지프 랭글러가 온로드에서 다소 무겁고 거친 감각이라면, FJ 크루저는 세단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부드러움을 지녔다.

다만 큰 배기량과 차체 때문에 연비는 썩 좋지 않다. 표시 연비는 도심 6.9km/ℓ, 고속도로 8.6km/ℓ이고, 시가지 위주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6.0km/ℓ를 기록했다.

FJ 크루저는 특유의 외관 때문에 레저에만 어울리는 차인 줄 알았다. 그러다 시승을 해보니 출퇴근용으로 시내를 다녀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장거리 온로드 주행에서 피로도가 적은 승차감도 인상적이었다. FJ 크루저의 가격은 5490만원. 한국토요타는 이 차를 100대 한정판매로 들여왔는데 계속 판매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틈새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꾸준한 데다 이 차가 토요타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le rur@metroseoul.co.kr

▲한 눈 봐도 거친 외모와 달리 제법 섬세하다. 기자생활을 즐긴다면 강력 추천

▲총평 ★★★★

자동차부품 대일 수출 '순항'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출이 엔저 파도를 넘으며 순항하고 있다.

2일 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1~9월 우리나라의 대일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6억75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6.7%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대일 수출이 4.6%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이로써 일본의 자동차부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2011년 8.78%에서 2012년 8.80%, 2013년 8.93%, 2014년 1~8월 9.73%로 높아졌다.

이처럼 대일 자동차부품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향상과 일본 완성차 업체의 부품 해외조달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엑센트		650	570	1,060	1,170
	뉴 클릭	320	550	370		
기아	올뉴모닝		700	780	910	910
	프라이드			1,070	1,140	1,210
쉐보레	스파크		510	680	720	840
	아베오			850	910	990
르노삼성	뉴SM3	690	680	590	1,200	1,300
미니	쿠퍼2세대	1,820	1,950	2,020	2,350	2,470
BMW	1시리즈	2,200	2,480	2,280	2,730	2,880
스마트	포투	1,670	1,790		1,870	2,730
피아트	500				1,730	1,80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가족의 소중함 전하는 '기러기의 주말' 광고 '화제'

기러기 아빠들의 생활을 주제로 제작된 광고가 화제다. 최근 기아자동차는 전 기러기 아빠의 이야기를 다룬 4분짜리 영상 '올 뉴 카니발-기러기의 주말'을 공개했다. 이는 올 뉴 카니발의 바이럴 영상으로, 기아자동차는 론칭 TV광고부터 1차 바이럴 '서프라이즈 카니발', 그리고 이번 '기러기의 주말'까지 일관적으로 프렌디(Friend+Daddy: 친구 같은 아빠)를 중심으로 한 가족 지향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론칭 광고였던 '떠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에서는 자연 속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의 모습을 통해 아빠가 아이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조언들을 전했다. 함께 전개된 바이럴 캠페인 '서프라이즈 카니발'에서는 대한민국 아빠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카니발 2차 바이럴 광고. 공항에서 가족과 재회하는 기러기 아빠의 스토리를 담았다.

이번 '기러기의 주말'편 영상은 5년 차 기러기 아빠인 박 부장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바이어의 의전을 맡게 되어 공항에 가게 되고, 바이어 대신 입국한 아내와 아이를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은 감동적인 가족의 재회와 함께,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기러기 아빠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이 영상에서는 기러기가 아닌 가족들에게도 '항상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잊고 있던 건 아닌가요?'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러한 아빠들을 위해 기아자는 아빠들이 쉽게 아이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카니발 패밀리톡 사이트(https://carnival.kia.com/)를 오픈, 공감톡 코너를 통해 아빠들을 위한 육아 가이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변신 로봇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또봇편, 아이들이 쓰는 줄임 말을 배울 수 있는 외어편, 사춘기 아이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 다룬 사춘기 편까지 총 세 가지 콘텐츠가 있다.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패밀리톡 사이트에 가족의 감동 사연을 올리면 호주 브리즈번으로 가족여행을 보내주는 '스토리톡' 코너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박기자)

여야 대표, 특단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정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지난달 30일에 여야 대표연설이 이뤄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같은 날에 단상에 올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연설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기의식'을 느끼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대표는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범 운동기구"를 제언했고 문 위원장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김 대표는 지금이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이라면서 담만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 골든타임'을 역설하면서 국회정치개혁특위를 가동시키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민관 노사 간에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사이에 시각차는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대타협론'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보기에 여야 대화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마련되는 듯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갖가지 난제는 정치적인 파행에서 오히려 증폭되는 중이다. 그토록 절실한 경제살리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국회다. 세월호 참사만 해도 대치정국으로 치달으며 국력만 소모하고 말았다. 여기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혁도 여야 간 공방전으로 표류 직전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역시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정치적 선택이 절실하나 딜레마의 연속이다. 여기에다 남북관계 대치국면도 늘 딜레마이다.

따라서 김무성 대표는 차기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나 다가오는 총선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 궂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득표에 인기 없는 분야라도 솔선해서 앞장서야 옳다. 그러한 각오가 정치현실에 투영될 때 국민에 감동을 줄 수 있다.

또한 문희상 위원장은 지리멸렬 상태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려내고 자가 정권교체를 기대하자면 그야말로 지탄받는 정치행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자세로 임해야 희망이 있다. 개헌론을 꺼내 정치개혁을 선창하고 있으나 당내 혁신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는 물론 당내외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는 당내혁신이 급하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길이 열린다.

이제는 무엇보다 여야 지도부가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자세로 특단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난국에 달리 해법이 없어 보인다.

포토프리즘 낙엽을 보는 느낌

1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 교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떨어진 낙엽을 쓸어 담고 있다. 어느새 떨어진 낙엽들이 늦가을이 끝나고 있다고 말하는 듯 하다. /손진영기자 son@

여야, 민생경제 챙겨야 할 때

뉴스룸에서
이 정 우
<정치사회부 차장>

올해 국정감사가 어느 때와 달리 큰 충돌이나 장기 파행 없이 지난달 27일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막말부터 증인들 불출석까지 올해도 구태는 여전했다. 그나마 카카오톡 사찰 논란, 군 주락 등에 대한 대책을 이끌어내고 방위사업청의 부조리를 캐낸 것이 성과로 꼽힌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마무리하고 대정부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특히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12월 2일)와 정기국회 폐회일(12월 10일) 얼마 남지 않아 예산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다루기에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부실·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여야는 촌각을 다퉈 예산안 처리와 민생·개혁법안에 심도 있는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국회가 치밀하게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심의와 입법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도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의 경우 합의한 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내심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국회는 2003년 이후 새해 예산안을 단 한 차례도 제때 통과시킨 적이 없다. 파행을 보이다가 막판 벼락치기로 법안 처리를 한 것이 부지기수다. 이런 악습으로 인한 부실 국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이번에는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실질적 심의가 동반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나마 올해 처음 적용되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추가적으로 시간을 두고 여·야·정 간에 좀 더 협상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내년 경제도 불확실성이 커지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동업자 정신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인기 가수는 팬을 몰고 다닌다. 일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장에서는 분신과 다름없는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인다. 그들의 환호에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들의 지지에 존재 가치를 인식한다. 자신의 재능을 녹슬지 않게 노력하고, 팬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끔씩 통제력을 잃어 실수하거나, 도를 넘어선 관심에 상처를 입지만 스타의 삶이려니 한다. 그의 주변에는 함께 밥벌이하는 사람들도 넘쳐난다. 그와 공존할 때 삶이 윤택해지는 이른바 '관계자'다.

자신의 부고만 아니면 득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의 홍보활동과 관련된 사상이다. 어떻게 해서든 언론의 주목을 받고 뉴스의 중심이 되면 행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설득력 있다. 정치사상에서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의 입장이 다양하다는 뜻도 된다. 여기에도 '관계자'가 많다. 정치인 한 명과 이해득실의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전시회, 박람회 개최는 연중무휴에 가깝다. 셀 수 없이 많은 단체가 주최하고 기업이 참여와 지원을 맡고 공공기관은 후원을 한다. 사람들은 광고에 손짓해 행사장을 찾는다. 적당한 볼거리와 시간소비를 맞바꾼다. 사업을 위해 찾은 사람들은 볼멘소리를 한다. 지금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프로그램이 엉망이라거나 만족한 수준의 행사가 아니라 한다. 어떻게 할 바에야 그 돈을 직접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다. '관계자'는 아연실색한다.

연예인의 행사가 부실한 건 안전을 보장할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용역금액을 제시해도 일을 하겠다는 업체는 줄을 선다. 정치인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에 독점적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입장을 취하면 보이지 않는 돈줄을 잡을 수 있다. 예전 억장과 말도 '바른 정당한 국민이 원하는' 등의 수식어 사용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에게 용역을 줄 때 입찰 제도를 이용한다. 그 제도의 핵심 중 하나는 최저가격이다. 용역에 대한 적정가격 판단은 필요 없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다. 홀로 존재할 수 있고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신체적·지적·외모적 능력의 차이를 떠나 누군가의 관계자일 수밖에 없다. 때론 관계의 중심이고 때론 관계의 주변이다. 그 뻔한 사실을 상기하자. 흔한 말로 동업자 정신 좀 갖자.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무관심하면 언젠가는 그 씨앗의 열매를 먹게 될 테니. 동업자 정신을 자본주의적 사고 말고 인문학적 사고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전)디자인플래닛 대표

서민 목소리 외면하는 미래부

기자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시간을 더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무작정 내버려두긴 어렵다." - 지난달 22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단통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행 고작 한달에 불과하다. 다소 성급하게 비판하는 분위기가 있다." - 지난달 31일 윤종록 미래부 차관

단통법 시행 이후 비난의 화살이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향하자 장·차관이 직접 나서 해명에 나섰다. 점진적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조금과 장려금을 늘렸지만 여전히 단통법 시행 이전과 크게 비교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 손님이 크게 줄어 문을 닫는 곳이 급증했고 인건비 감소를 위해 직원들도 거리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한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한달 간 위축된 시장은 회복 중이며, 이용자 차별은 사라지고 알뜰한 통신 소비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 시행 초기에 비해 최근 아이폰6 출시에 힘입어 이통사 간 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여기에 미래부가 얼마나 기여했을까?

여전히 30만원이라는 보조금 틀 안에서 서민들을 위한 혜택은 정부의 규제 안에 갇혀 있다. 진정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부는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퍼슈머'를 아세요"… 원산지 확인 소비자↑

유통업계 '더 깨끗하게, 더 정확하게' 주목

깐깐하게 원산지까지 따져가며 제품 또는 음식 메뉴를 선택하는 '퍼슈머'들이 늘어나고 있다. '퍼슈머'란 pursue(추적하다)와 consumer(소비자)가 합성된 신조어다.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원산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소비자를 뜻한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는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한 제품을 내놓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이하 NSC)는 지난 8월부터 다음 달 말까지 '노르게(Norge)' 로고 알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로고는 노르웨이산 수산물임을 인증하는 마크로, 정식 절차를 거쳐 원산지를 확인받은 제품에만 사용된다.

고려은단의 종합 비타민 제인 '비타플렉스'는 이런 퍼슈머들을 위해 원료의 원산지를 100% 공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유럽의 옥수수밭에서 시작된 영국산 비타민C(Ascorbic Acid 97%)를 독점으로 공급받아 만든다. 또 비오틴과 비타민E는 프랑스산, 비타민B1·B2·B6와 철·마그네슘·아연·셀레늄·요오드·크롬은 독일산을 사용했다. 이 외의 각종 성분들에 대해 원료와 원산지를 100%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

스쿨푸드는 식재료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밥은 신동진 쌀에 다시마와 청주를 넣고 짓는다. 김은 깨끗한 남해 바다에서 재취한 것만 사용한다. '오징어 먹물마리'는 블랙푸드의 선두주자 스페인산 최고급 오징어 먹물을 사용한다.

때일유업은 유아식에 사용하는 모든 원료 원산지를 홈페이지에 100% 공개하고 방사능 안심 등의 원칙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방사능 오염 검사 장비인 '고순도 게르마늄 다중 최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조 전 과정에 걸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안심인증 마크 획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유아 과자인 '맘마밀 요미요미 유기농 쌀 과자'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 유기가공식품 인증, HACCP 등을 모두 획득했다. 또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이력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정해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블랙프라이데이 '관심'

목록통관 품목 확대로 분위기 고조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11월 중순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명품 패션을 비롯해 가전, 유아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해외 쇼핑 수요가 늘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블랙프라이데이가 1~2년 전부터 주목받게 됐다.

이날은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구족들에게는 저렴하게 해외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올해는 11월 28일이다.

온라인 유통 업계는 상품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또 일부는 서비스 개선에 나서면서 블랙프라이데이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 매출이 좋았던 데다 올해는 200 달러 이하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쇼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옥션은 11월 셋째 주부터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가짓수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11번가는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해외 브랜드 매출이 전년 대비 85% 뛰었다. 올해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이벤트를 연다.

특가 상품을 포함해 명품의류·잡화 등을 최대 50%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도 기획 중이다.

위메프는 배송대행 서비스인 위메프박스를 강화했다. 배송사고가 발생하면 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송대행지도 델라웨어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 해외 직구 서비스 '스냅샵'은 블랙프라이데이 전까지 매주 1회 '미니 블랙프라이데이'를 실시한다. 지난 24일 진행된 첫 이벤트에서 전 상품이 매진되기도 했다.

배송대행업체 세븐존은 매일 1명에게 운임 결제한 전액을 쿠폰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29일까지 연다.

한편 올해 들어(1월 1일~10월 30일) 유통업계의 직구 매출은 두 자릿수 신장했다. 실제 11번가는 해외 쇼핑 매출이 53% 급증했으며 G마켓은 해외 직구 코너 판매가 65%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직구의 경우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픈마켓 직구 코너 등을 통한 방법도 절차가 간편하고 주문이 수월해 고객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illegible]

'이쯤 되면 세계 최고'

경연대회 수상 제품… 럭셔리 식품족에 인기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고 먹거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럭셔리 식품족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위 있는 세계적인 푸드 경연대회 등에서 수상까지 거머쥐며 소비자들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

먼저 세계 식품 트렌드를 주도하는 '팬시 푸드쇼(Fancy Food Show)'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스톤월 키친 '로스티드 갈릭 어니언 잼'은 독창적인 맛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 제품은 구운 마늘과 달콤한 양파, 발사믹 비니거의 조화로 재료의 깊은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신개념 잼이다. 특히 고기와도 궁합이 잘 맞아 일반 과일 잼에 비해 활용도가 높다.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식품박람회 '아누가(Anuga)'에 베스트 이노베이션을 수상한 올리타리아 '드링크 비니거'는 이탈리아 모데나 지역 식품인 발사믹 식초와 주스를 배합한 제품으로 원재료 내 과당 이 외에 설탕과 식품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은 건강한 발효 식초이다.

취향에 따라 다양한 요리에 응용이 가능하며 물이나 탄산수와 함께 희석해 마실 수도 있다.

화이트진로음료 '디아망'은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된 세계적 권위의 식품 품평회 '몽드셀렉션(Monde Selection)' 탄산수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그 맛을 인정받았다.

기존 유리병 패키지로만 출시됐었던 '디아망'은 최근 가벼운 페트(PET)병 패키지가 출시돼 휴대와 보관이 간편해졌다. '디아망 플레인', '디아망 라임향'도 함께 선보였다.

/정해원기자

10인분 시키면 10인분 무료 증정

강강술래, 가을맞이 착한 외식 이벤트
와인1+1, 육포·떡갈비 30% 할인행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객들이 부담 없이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14일까지 '가을맞이 착한 외식 이벤트'를 벌인다.

삼계 휴대 서호·늘봄농원점은 한우불고기, 돼지고기 등 구이류를 주문하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만큼 결재 때 무료 증정한다. 신림점은 소고기 구이메뉴 주문 때 한우불고기를 준다. (레피아취·정식류 제외, 신림 시흥점 주중에만 진행)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는 육류와 잘 어울리는 산타리타 레이로 카버네소비뇽 와인 1병을 주문하면 결제 때 산타리타 레이로 멜롯 와인 1병을 선물로 증정한다.

쇼핑몰(sulla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캠핑이나 나들이에 잘 어울리는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정성한우떡갈비(360g X3팩 4만2000원)와 갈비맛 쇠고기육포(50g 6봉·2만5800원)를 30% 할인 판매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명지대 산학협력단(벤처기업 명지생활건강)이 만든 명지 아로니아 칼스베리(1세트 23만원)를 증정한다.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의 7배, 포도의 80배 이상 함유돼 있으며 색소·방부제 향료·설탕을 일체 넣지 않아 피로회복과 노화방지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해원기자

패션업계 '복합 매장'으로 불황 타개

캐주얼 - 아웃도어·유아복 등 다양한 브랜드로 소비자 공략

최근 패션업계에 두 브랜드 이상이 함께 구성된 복합매장 바람이 불고 있다. 매출 부진을 겪는 브랜드들이 불황탈출의 방법으로 복합매장을 찾고 있는 것.

2일 업계에 따르면 유아동복 기업 드림스코(사진)는 자사 브랜드인 컬리수와 모이몰른을 동시에 구성하는 복합 브랜드 매장 오픈을 확대하고 있다.

드림스코 복합매장의 컬리수는 4~12세 아동, 모이몰른은 0~5세 유아에 전문화된 상품군을 두루 갖추고 있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유아동 패션 전문점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드림스코 복합매장의 규모는 단독 매장에 비해 20~50% 정도 늘어난 데 반해 매출액은 90~120%까지 경충 뛰었다. 지난 7월 강원도 속초점을 시작으로 춘천 퇴계점·서울 헤이브랜드점, 서울 포도몰점 등 현재까지 전국에 6개의 유아동 복합매장을 오픈한 상태며 올 연말까지 2개 이상 추가로 복합매장을 열 계획이다.

패션그룹 형지는 여성 전문 아웃도어 '와일드로즈'와 여성 캐주얼 '샤트렌'을 한 매장에 구성한 복합매장 '샤트렌로즈'를 운영 중이다.

형지는 '여자의 모든 패션이 있다'는 콘셉트 아래 여성복과 아웃도어를 함께 갖추고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샤트렌로즈는 지난 9월 성남 태평점을 시작으로 서울 중화점, 인천 주안점 등 6개 매장을 열었으며, 올해 말까지 총 10개 지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원은 베스띠벨리·씨 비키·이사베이 등의 자사 대표 브랜드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복합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원의 복합매장은 전 연령이 소화할 수 있도록 제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균 50% 이상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신원은 지난 3월 베스띠벨리·씨·비키 등 3개 브랜드를 구성한 통합 직영점을 열었고, 올 연말까지 전국에 복합매장을 80여 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주방업체, 쿠킹클래스 주목

소비자 직접 체험 기회 제공… 신뢰 얻기

주방용품 업계가 쿠킹클래스를 잇따라 열고 있다.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타파웨어브랜즈는 12일 자질 건강을 담은 우리 식구 '밥상'이라는 주제로 쿠킹클래스를 연다.

이날 박해리 휴 이코노미스트가 진행하고, 참가자에게는 김장철을 맞아 '명품 보음 그릇'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부터 다양한 주제로 쿠킹클래스를 진행해왔다.

욕소 굿그립(사진)은 3일 CJ백설원에서 레시피 클래스를 실시한다. 유럽식 디저트 카놀리와 티라미수 등의 요리법이 공개되며, 사용되는 조리 도구는 모두 자사 제품이다.

휘슬러코리아는 웨딩매거진 웨딩21과 웨딩쿠킹클래스를 개최한다.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알아야 할 핵심 레시피와 양지훈 셰프만의 노하우가 총 4주간의 다양한 클래스를 통해 공개된다. 해당 클래스는 휘슬러 갤러리에서 12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진행된다.

/김수철기자 [illegible]

다운재킷 '충전재·솜털 비율' 꼼꼼히…

필파워 600 넘으면 고급 방수·발수 등 기능 체크

겨울을 앞두고 스포츠·아웃도어 업계들이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한 다운 재킷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디자인과 가격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충전재·원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다운 비율·필파워 확인

다운재킷에는 오리나 거위의 가슴 부위 솜털인 '다운'과 깃털인 '페더'를 충전재로 사용한다.

솜털 비율이 높을수록 열전도율이 낮은 공기를 많이 머금게 되며 두터운 공기층을 많이 형성해 내부의 온기를 보존해주고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한다. 솜털과 깃털의 비율이 80대 20 정도면 우수한 제품이다. 솜털이 90% 이상인 제품은 가볍고 풍성한 볼륨감과 보온성도 갖추고 있어 최고급 제품으로 인정받는다.

다운재킷의 택이나 손목 부위에 기재되어 있는 필파워 수치는 복원력을 의미해 중요한 구매포인트가 된다.

일반적으로 필파워가 600 이상인 제품은 고급, 800 이상인 제품은 최고급 다운재킷으로 분류된다.

다운재킷에 사용되는 원단 또한 체크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눈과 비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수·발수 기능이 있는 소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겉감이 젖어 다운 충전재가 습기에 노출되면 털 가지가 뭉치면서 보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재봉선을 통해 다운이 새는 경우가 잦으므로 이중으로 박음질이 마감돼 있는 다운 프루프 기술이 적용됐는지도 살펴본다.

최근에는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안감으로 발열 소재를 석용한 제품 또한 늘고 있다.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반사시켜 다운재킷 내부의 온도를 높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보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면 추천할 만하다.

/[illegible]기자

"간을 건강하게"… '밀크씨슬' 각광

식·음료업계는 물론 제약업계도 제품 출시

최근 간 건강을 위한 '밀크씨슬'이 화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밀크씨슬은 엉겅퀴풀의 일종으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글루타치온 생성을 증가시켜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유해물질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간 건강을 위해 약 2000년 전부터 이 식물을 섭취해왔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음료업계는 물론 제약업계에서도 연이어 제품을 내놓고 있다.

먼저 풀무원건강생활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그린체의 '헤파바'는 밀크씨슬 추출물과 함께 표고버섯균사체와 효모 등을 함유한 제품이다. 다양한 성분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또 교원건강연의 '웰씨드 간 건강 밀크씨슬'은 이탈리아산 밀크씨슬 추출물과 국산 오미자 추출물 농축분말 등을 배합한 제품이며 대상웰라이프의 '밀크씨슬 솔루간'은 헛개나무 추출물과 울금 추출물 등을 더해 간의 해독 기능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이다.

아울러 밀크씨슬 추출물이 첨가된 액상 형태의 음료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풀무원녹즙의 식물성 유산균 명일엽은 간뿐만 아니라 명일엽을 발효시켜 장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한국야쿠르트의 '쿠퍼스 프리미엄'은 헛개나무와 밀크씨슬 추출물을 한 병에 담아 알코올성 간 손상 예방과 일상생활 속 간 건강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게다가 CJ제일제당은 여성이 남성과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해도 훨씬 간의 손상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성분을 유지하면서 밀크씨슬 추출물이 첨가된 숙취해소제 '컨디션 레이디'를 판매 중이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에서도 시장 확대 등을 위해 밀크씨슬을 이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JW중외제약은 밀크시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인 '간에 좋은 복합 밀크시슬'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 제품은 체내 에너지 대사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군도 함유하고 있으며 엉지배엇 추출물 등으로 기능성을 높였다.

씨스팡이 선보인 '간건강 밀크씨슬'은 항산화 방어체계에 효과적인 PME88별로 추출물과 함께 밀크씨슬 성분이 고농도로 함유돼 과체중으로 인한 간 손상과 과다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그리고 전반적인 체력 저하에도 도움이 된다.

식물 영양소 제품으로 잘 알려진 뉴트리라이트는 민들레 뿌리 추출물과 시트러스 추출물 등 식물 성분이 함께 들어간 '밀크씨슬 이엑스 플' 등에 밀크씨슬 제품 대열에 합류했다.

/휴채윤기자 hone@metroseoul.co.kr

호텔업계 '가을 女心'을 잡아라

도심서 즐기는 특급 힐링

깊어가는 가을 특급호텔들이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여자들만의 즐거운 파티를 즐겨보자.

먼저 롯데호텔서울은 지친 심신을 전통 한방요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설화수 스파 패키지를 준비했다. 호텔에서의 1박과 설화수 스파 윤안 순환 또는 균형 케어 등으로 구성돼 있어 건강한 힐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롯데호텔부산에서는 여자들만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우야 걸프렌즈 패키지'를 만날 수 있다.

더 플라자는 부티크 플라워 브랜드 지스텀에서 가을원 힐링을 테마로 플라워 클래스 수강과 함께 스파 트리트먼트의 카페 디저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가을 스페셜 플라워 클래스' 등 서울팔래스호텔은 피부 보호와 치유를 통해 피부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VDL의 스킨 프로라인과 함께하는 룸 패키지'와 가을 오후에 어울리는 7가지 매력의 룸보알티를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아울러 그랜드 힐튼 서울은 새로운 곳에서 남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쌓길 원하는 여자 청춘들을 위해 '가을 레이디즈 패키지'를 선보이며 세종호텔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을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감성어린 패키지가 여성을 유혹하고 있다.

또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호텔은 가을을 맞아 로비라운지 휘닉스에서 건강한 몸을 위한 '티 테라피 프로모션'과 함께 호텔 셰프가 직접 구워주는 화덕 피자를 맛볼 수 있는 '피자&와인 프로모션'을 통해 가을 감성을 선사한다.

/윤재용기자

동국제약, 중년 여성 '동행' 캠페인

동국제약(대표 어영욱)이 최근 중년 여성들의 건강을 위한 동행 캠페인 참가자들을 초청해 북한산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회사의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와 여성 갱년기 치료제 '훼라민큐'와 관련된 중년 질환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행사에는 응모를 통해 선정된 40세 이상의 중년 여성들 50여 명이 참여해 단짝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들은 도봉옛길을 거쳐 방학동길까지 약 3시간을 걸으며 단풍이 절정을 맞은 북한산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아울러 회사는 기념사진 촬영과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걷기 종료 후에는 기념품과 영화예매권 등을 증정하기도 했다.

센시아는 성인의 약 절반 정도가 증상을 보이는 중년 질환인 정맥순환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훼라민큐는 여성 갱년기의 신체·심리적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제다.

/황재용기자

르네상스 서울 호텔, 웨딩페어

예비부부 초대… 웨딩쇼·가수 션 스피치 진행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웨딩 관계자들 200명을 초대해 웨딩페어를 개최했다.

호텔은 "Falling in Renaissance"를 주제로 품격 있는 분위기와 전통이 돋보이는 웨딩을 연출했다.

1부에서는 뷔페 웨딩쇼와 가수 션의 행복한 기적에 대한 스피치, 깜짝 프로포즈 이벤트가 진행됐고 2부에서는 셰프가 엄선한 특별한 웨딩 만찬과 함께 로맨틱 콘서트가 이어졌다.

아울러 호텔 숙박권과 JW메리어트 서울 뷔페 식사권 등이 상품으로 주어지는 경품 추첨 행사도 마련됐다.

호텔 관계자는 "특급호텔에 맞는 세심하고 품격 있는 웨딩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라며 "예비 부부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우리 호텔과 함께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3주 이상 지속땐 '만성 기침'

호흡기내과 진료 필수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감기약을 먹어도 기침이 멎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만성 기침을 의심해야 한다.

사실 기침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방어 반응 중 하나다. 외부 물질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제거하는 것으로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지 못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또 기침은 급성 기침(3주 미만)과 아급성 기침(3~8주), 만성 기침(8주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 기침은 일시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통 3주 내에 증상이 없어진다. 반면 아급성 기침은 급성과 만성의 중간 단계로 상기도 감염으로 야기되는 감염 후 증상이며 만성 기침은 8주 이상 기침이 끊이지 않는 경우다.

문제는 기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로 기침의 빈도가 늘고 지속기간이 길면 일상생활이나 수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흉통이나 두통이 생기고 심하면 늑골골절이나 실신 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침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열이나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기침이 계속되면 감기 이외의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있는데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은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나 기침형 천식, 혹은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다.

게다가 약을 이용해 단순히 기침만 줄이려는 것보다는 호흡기내과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먼저다. 또 위식도 역류는 위 속의 음식물이나 위산이 역류하면서 목으로 넘어온 잔여물의 일부가 기도로 들어가 기침이 발생하는 것으로 반드시 소화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주연 욕심? 아직은 민폐죠"

끝없는 사랑 칠성 역

배민수

배우 배민수(23)에게 지난 26일 종영된 SBS 주말극 '끝없는 사랑'은 뜻 깊은 작품이다. 2009년 드라마 '태양을 삼켜라'와 '스타일'에서 단역으로 현장을 처음 경험한 뒤 5년여 만에 첫 회부터 최종회까지 등장한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배민수는 '끝없는 사랑'에서 서인애(황정음)·한광철(정경호)의 고향 친구 칠성 역을 맡았다. 극 중반부터는 건설 사업을 시작한 한광철의 곁을 지켰다.

뜻 깊은 작품, 조기종영 아쉬워 연극동아리활동으로 내공 쌓아 "스타보다 연기파 배우 되고 싶어"

◆ **드라마 초반에는 칠성을 포함해 폭주족 멤버 4명이 있었다**

원래 계획은 아니었는데 극이 전개되면서 나머지 출연진은 등장하지 않게 됐다. 한광철의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나만 출연하게 됐다. 21부까지는 서로 연락을 했었는데 조금씩 뜸해졌다. 분위기 띄우는 역할이 나뿐이어서 부담감이 엄청났다. 최성국 선배가 많이 도와줬다. 애드리브의 황제답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 가지 않는 즉흥 연기를 가르쳐줬다. '이걸 신뢰 해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했다. 결국 편집 되는 게 겁나서 한번도 못 해봤다 (웃음)

◆ **최종회에 칠성은 결혼을 했다**

극 초반 서인애와 함께 교도소 생활을 한 여원 여자에게 두부를 주는 장면이 있었다. 그 분이 마지막 회에 내 아내로 다시 출연했다. 여섯 살 아이가 대기실에 왔을 때 '네가 내 애구나' 라는 심정이었다. 실제로 남동생만 둘이다. 막둥이가 열 살이어서 여섯 살 아이와 금방 친해졌다.

◆ **막둥이는 '끝없는 사랑' 잘 봤나?**

드라마를 즐겨본다. 본방사수까지 못하면 다운 받아서라도 본다. 막둥이는 내가 나오면 평소 모습과 달라 어색하니까 웃기만 했다.

◆ **결말에 대한 욕심이 많다**

출연 배우들끼리도 만족하지 않았다. 조기 종영을 하니까 급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게 최선일까' 싶어 많이 아쉬워했다.

◆ **어떻게 캐스팅 됐나?**

작가님과 1대1로 오디션을 봤다. 그때는 한광철 캐릭터를 연기했다. 첫 리허설 때 정경호 형이 SBS 예능 '도시의 법칙' 촬영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한광철 역을 내가 대신 연기했다. 감독님과 작가님이 칭찬해주셨다.

◆ **실제로 한광철 역을 맡았다면?**

못했을 것이다. '끝없는 사랑' 직전 전국 연극제에 출품된 연극에서 사이코패스 역으로 처음 주연을 맡았다. 그때 주연의 무게를 알게 됐다. 연극 한 시간 반을 끌고 가는 게 정말 힘들었다. 주연을 논하는 건 아직 아닌 것 같다. 민폐라고 본다.

◆ **원래 꿈이 배우였나?**

아니다. 고등학생 때 스태프를 하면 많이 놀 수 있다고 해서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다.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이 와서 성교육 연극을 함께 준비했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변태 역할을 맡게 됐는데 연기를 해보니 호기심이 생겼다. 이후 추천을 통해 고양시의 후원을 받는 연극을 하게 됐다. 양택조·사미자 선생님과 함께 했었는데 양택조 선생님이 내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게이 역할을 하라고 했다. '당신은 눈에 의미를 아십니까'(2010)라는 연극이었다. 이 작품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이후 엑스트라로 시작해 한 단계씩 밟아왔다. 데뷔작은 '무신'(2012)이다. 당시 본명인 '배진섭'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했었다. 시청자가 '오승직 역할 하는 배우는 누구인가요'라고 궁금해 했다. 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던 때였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게시글을 올리며 영업을 했다. '끝없는 사랑'부터 배민수로 이름을 바꿨다.

◆ **실제 연예계의 현실은 어떠했나?**

촬영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면 화기애애하다. 그런데 정작 촬영이 끝나면 각자 차에 가기 일쑤다. 그 부분이 상상했던 것과 가장 달랐다. 그런데 '끝없는 사랑'은 카메라가 없어도 출연진끼리 굉장히 친했다. 대기실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경호 형은 내가 NG를 많이 내면 '군대 가면 정신 차린다'고 장난을 쳤다. 류수영 형은 MBC '진짜 사나이' 속 순둥이 모습 그대로다. 특히 류수영 형과 차인표 선배의 어깨를 좋아한다. 정경호 형과 나는 어좁이(어깨가 좁은 사람)다. 둘이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류수영 형이나 차인표 선배가 끼면 초라해졌다 (웃음) 어깨의 반만이라도 갖고 싶다.

◆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

연기파 배우다. 그래도 솔직히 인지도가 있어야 하고 싶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하정우·조진웅·김성균·조정석처럼 대중성과 연기력을 모두 갖추고 싶다.

/전효진기자 @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현우) 디자인/

tvN 월화드라마
라이어게임
극한심리추적극
끝없는 배신과 반전,
그러나 필승법은 있다!
매주 {월,화} 밤 11시 tvN 방송
이상윤 ♠ 신성록

세상과 작별인사 나눈 '마왕'

조문객 1만6천여 명… 사인 규명 위해 부검 결정

'마왕' 신해철이 끝내 세상과 작별인사를 나눴다. 그의 음악과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이 장례식장을 찾아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

지난 31일 오전 8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는 고(故) 신해철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이날 발인식에는 유족과 팬, 취재진 등 300여명이 자리했다. 신해철이 이끌었던 넥스트 멤버들과 서태지 이은성 부부, 싸이, 이승철, 윤종신, 윤도현, 남궁연, 타블로 등 동료 가수들도 함께 했다.

서태지는 동료 가수들을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했다. 그는 "우리 가요계가 그의 음악에 많은 빚을 졌다. 항상 최고의 음악을 들려줘 고마웠다"며 "형에게 멋지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아름다운 추억과 음악을 선물한 그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발인 미사가 끝난 뒤 관이 운구차량으로 옮겨졌다. 윤도현이 위패를 들고 넥스트 멤버들이 운구를 맡았다. 운구를 지켜본 부인 윤원희 씨를 비롯해 동료 뮤지션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쏟았다. 팬들도 함께 오열했다.

지난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고 신해철의 발인식 이후 운구 행렬이 영결식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해철의 죽음은 한 가수의 죽음이 아닌 9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의 죽음으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27일 세상을 떠난 그를 애도하기 위해 빈소를 찾은 조문객만도 1만6000여 명이다. 회사에 월차를 내고 온 여성 팬, 지방에서 고교 동창들과 함께 올라온 30대 후반 남성 팬, 신해철의 음악으로 꿈을 키웠다는 무명 기타리스트 등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신해철의 음악과 함께 90년대를 보낸 30~40대 팬들이 특히 많았다.

한편 31일 발인식에 이어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예정됐던 화장 절차는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는 취지로 중단됐다.

이승철 등 동료 가수들은 화장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에 부검을 요청했고 유족이 심사숙고 끝에 화장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도 "유족들도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고인을 억울함 없이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부검은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작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 직전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1일 2시간 가량 S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아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기 전 고인이 소장에서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 때문에 염증이 퍼져 있었다는 병원 기록도 입수해 검토 중이다.

/장병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샤이니 日 도쿄돔 상륙

내년 3월 단독 콘서트… 11번째 싱글도 발표

그룹 샤이니(사진)가 일본 도쿄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샤이니가 내년 3월14일~15일 이틀 동안 일본 초대형 공연장인 도쿄돔에서 '샤이니 월드 2014~아임 유어 보이~스페셜 에디션 인 도쿄 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샤이니가 2011년 일본 데뷔 이후 처음 펼치는 도쿄돔 단독 공연이다. 또한 다음달 14일까지 일본 내 전국 20개 도시에서 총 30회에 걸쳐 펼치는 일본 투어 '샤이니 월드 2014~아임 유어 보이'의 스페셜 공연이기도 하다. 샤이니는 이번 공연을 통해 앨범 수록곡과 신곡 무대를 [illegible]일 예정이다.

샤이니는 지난 9월24일 일본에서 정규 3집 음반 '아임 유어 보이'를 발표했다. 이 음반은 오리콘 위클리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샤이니의 일본 내 인기를 증명했다. 내년 3월11일에는 일본에서 11번째 싱글도 선보일 계획이다. /정해욱기자

'비정상회담' 연출자·음악감독 징계

기미가요 사용 논란… "국민 정서 해친 점 사과"

JTBC는 방송 도중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논란에 휘말린 '비정상회담'에 대해 책임 프로듀서 겸 연출자를 보직해임 및 경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1일 JTBC는 "'비정상회담' 1회와 17회에서 일본 대표 등장시 기미가요를 사용해 국민 정서를 해치고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해드렸다.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금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비정상회담'의 책임 프로듀서 겸 연출자를 보직해임 및 경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에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재삽한 프리랜서 음악감독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업무 계약 파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JTBC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크나큰 잘못이 발생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방송 콘텐츠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앞서 '비정상회담'은 지난달 27일 방송된 17회에서 일본 대표가 등장할 당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공식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첫 방송에서도 기미가요가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장병호기자

설리, 3개월 만에 공식석상

'패션왕' 언론시사회 참석 "예쁘고 따뜻하게 봐주길"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설리(사진)가 3개월 만에 배우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서울 CGV 왕십리에서 열린 영화 '패션왕' 언론시사회에는 설리와 함께 오기환 감독과 주연 배우 주원, 안재현, 신주환, 김성오가 참석했다.

이날 시사회에서 설리는 "연기력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며 3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참석한 소감을 들려줬다.

앞서 설리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월25일 "설리가 지속적인 악성 댓글과 사실이 아닌 루머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신이 많이 지쳐있어 당분간 연예 활동을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활동 중단 소식을 전했다. 이날 '패션왕' 언론시사회는 설리의 오랜만의 공식석상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에 '패션왕' 측은 기자간담회 직전 영화 이외의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 이어 '패션왕'으로 다시 스크린을 찾게 된 설리는 "두 영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감독님들 덕분이었다. 그리고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도와준 배우들의 도움도 컸다. 이 자리도 함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패션왕'에 출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작품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나이에 맞는 학생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무엇보다 영화가 정말 좋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감독님과 마음이 잘 맞았다"고 설명했다.

동명 웹툰을 영화화한 '패션왕'에서 설리는 외모를 포기하고 성적을 선택한 전교 1등 곽은진을 연기했다. 이날 공개된 영화에서는 허름한 추리닝에 헝클어진 머리, 커다란 안경을 쓴 모습으로 등장해 신선한 변신을 보여줬다.

설리는 "어떻게 하면 못 생겨 보일지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 그런데 못 생겨질수록 촬영장에서의 반응이 좋았다. 그런 분위기가 재미있었고 편안했다. 내 모습을 찾았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주인공 우기명 역으로 설리와 호흡을 맞춘 주원은 "설리는 못 생긴 모습도 예뻤다"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끝으로 설리는 "배우들과 함께 열심히 촬영한 영화다. 우리의 진심이 관객에게도 전해지면 좋겠다"고 기대를 전했다. '패션왕'은 오는 6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부모 찾는 '덕수리 5형제'

윤상현·송새벽·이광수 주연

윤상현·송새벽·황찬성·이광수 주연의 코미디 영화 '덕수리 5형제'(감독 전형준)가 다음달 4일 개봉을 확정했다.

'덕수리 5형제'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는 원수 같은 다섯 형제가 부모님의 실종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합동수사작전을 벌인다는 내용의 영화다.

이번 영화에서 윤상현은 다섯 형제 중 장남인 수교 역을 맡았다. 진지하고 진중한 면모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둘째 동수 역은 송새벽이 맡아 조폭 같은 외모에 소녀의 감성을 지닌 반전 캐릭터로 웃음을 책임진다.

셋째 현정 역은 '대한민국 1% 로 이름을 알린 배우 이아이가, 넷째 수근 역은 '레드카펫'으로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준 그룹 2PM 멤버 황찬성이 맡았다. 막내 수정 역은 아역 배우 김지민이 연기한다. 최근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이광수는 어리바리한 경찰 박순경 역으로 출연해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

/장병호기자

'나를 찾아줘' 100만 돌파

외화 스릴러 흥행 신기록

데이빗 핀처 감독의 스릴러 영화 '나를 찾아줘'가 개봉 10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나를 찾아줘'는 개봉 10일째인 지난 1일 15만2825명의 관객을 추가하며 누적 관객수 106만6777명을 기록했다.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나를 찾아줘'는 10일 연속으로 정상을 지키며 가을 극장가의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나를 찾아줘'의 흥행 스코어는 역대 국내 개봉 외화 스릴러 영화들 중 가장 높은 성적이다. 데이빗 핀처 감독 영화 중 국내 최고 흥행작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176만)의 기록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지난 30일 개봉한 설경구, 박해일 주연의 영화 '나의 독재자'는 개봉 첫날인 지난달 30일 박스오피스 2위로 등장했으나 1일 토요일에는 3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누적 관객수는 20만4722명이다. 김성균, 조진웅 주연의 코미디 '우리는 형제입니다'는 71만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장병호기자

박보영·엄지원 '소녀' 촬영 끝내

와이어 액션까지 소화…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

박보영, 엄지원 주연의 영화 '소녀'(가제, 감독 이해영)가 3개월 동안의 촬영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크랭크업했다.

'소녀'는 1938년 경성의 요양기숙학교에 한 소녀가 전학을 오면서 겪게 되는 기이한 일들을 그린 미스터리 영화다.

지난 24일 대전의 한 세트장에서 진행된 마지막 촬영은 주인공 소녀 주란(박보영)과 교장(엄지원)이 마주하게 되는 영화 속 클라이맥스 장면이었다. 박보영, 엄지원은 와이어 액션과 폭발 신 등 고난도의 촬영을 마친 뒤 서로 다친 곳이 없는지 걱정하는 모습으로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또한 힘든 내색 없이 와이어 액션 연기를 직접 소화해내 주위 스태프들의 놀라움을 샀다.

촬영을 마친 뒤 박보영은 "촬영이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이다. 감독님이 저의 새로운 모습을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셔서 매우 만족한다. 제가 만들어낸 주란이라는 캐릭터를 많이 기대해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엄지원은 "처음 해보는 악역이었다. 이해영 감독님과의 두 번째 작품이라서 많이 믿고 의지했다. 재미있게 촬영했고 우리 소녀들이 참 예쁘고 사랑스러웠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해영 감독은 "끝까지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준 스태프, 배우들에게 감사하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체력 모든 걸 쏟아부은 박보영에게 특별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잘 마무리해서 좋은 영화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소녀'는 후반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자고 건조한 공기는 기도 과민성을 유발해 계림이나 천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www.paik.ac.kr)

할인판매의 계절, 와인 잘 고르기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연말 송년회를 앞두고 와인을 사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롯데와 신세계백화점이 벌써 대대적인 할인판매에 들어갔다. 물량도 막대하고 할인폭도 크다. 이제부터 거의 한 달 이상 백화점에서 와인전문 숍까지 할인 행사가 줄을 잇는다. 좋은 품질의 와인을 비교적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일부 매니아들은 이 기간에 좋은 와인을 많이 사서 자신의 셀러(와인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두고 두고 마신다.

별다른 와인 지식이 없는 애주가들에게 몇 가지 와인 잘 사는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을 고려해야한다. 해양성 기후로 연중 큰 변화가 없는 더운 나라의 와인은 당도가 높아 대체로 알코올 함량이 높고 품질이 균일하다. 남반구의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공 와인이 이에 속한다. 미국 서해안 지역도 이 영역에 해당된다. 유럽의 경우 지중해에 인접한 지역 와인이 그렇다. 반면 대륙성 기후는 변화가 커 매년 생산되는 와인의 품질이 제각각이다. 특히 추운 해의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낮고 가볍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의 와인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 한다.

포도를 수확한 연도를 표시하는 빈티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맹신하면 안된다. 무조건 오래된 빈티지라고 좋은 것은 아니다. 명품 와인은 오래된 것이 좋지만 가격이 무척 비싸다. 오히려 싼 가격의 최근 빈티지 제품이 실제 확률을 낮춘다.

코르크와 캡슐 상태의 점검도 필수다. 캡슐은 병 마개를 둘러싼 알루미늄 박막이다. 손으로 잡고 비틀었을 때 잘 돌아가야 정상이다. 돌아가지 않으면 와인이 샜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와인의 산화로 이어지고 소위 '맛이 간' 와인일 수 있다.

라벨이 손상된 와인은 특히 할인 폭이 크다. 보관 상태에 의심이 가고 상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오래된 와인의 선택은 금물. 가능한 한 최근의 빈티지를 골라야 실패한 와인을 피할 수 있다.

단골 샵을 만들면 실패 확률도 낮추고 숍 매니저를 통해 와인에 대한 여러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이 역시 지혜로운 방법이다.

fmcho@metroseoul.co.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8						
7						4		3
		1			7		8	
	2				1	9		6
	9		5		2		4	
5		7	8				3	
	7		6			5		
6		4						9
						6	1	

	4					9	3	6
2					3	7		4
			4					
		5		8	4	2		
			1		7			
		7	2	6		3		
					1			
8		6	7					5
7	2	9					6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보누스
(연사 스도쿠 프리미어 (재미 고든 스펜크 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ERP 정보관리사 합격 가능한지
열심히 공부하면 2016년 결실맺어

Q 곽혜희 여자 32세 12월 18일 술시 자생

좋은 글로 복을 받으시며 인사가 늦어 죄송하고 건강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궁금증을 여쭙습니다. 저는 올해 32세 여자입니다. 음력 12월 18일 자정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지방대 2년제 소프트웨어 학과를 나왔으며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현재 경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공을 살려 볼까 해서 ERP정보관리사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센터에 다니면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ERP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ERP 정보관리에도 분야가 많아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합격여부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이 옛글에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옛사람은 동물을 비유할 때 소띠생 (十二地支 12동물)에 비유하여 그 사람의 평생발달과 식록의 방향 산이 좋은지 물이 좋은지 등 동서남북으로 정해진 분수를 앎았습니다. 83년 5월 자시 생으로 축월(丑月)축일(丑日)에 태어났습니다. 즉 소(丑)월, 소(丑)날에 태어났는데 소는 부지런하고 주인에게 충직하여 많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므로 게으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많이 비유되기도 합니다. 근면과 인내심을 나타내며 그래서인지 부모의 덕이 별로 없고 일복이 많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4년은 갑오(甲午)년 해인데 소가 말을 본다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2015년은 을미(乙未)년으로 먹이를 넘어가 뺏기는 상황이 전개되어 불리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웬만한 일들은 생각대로 마무리되는 시기이며 시험에도 운세가 작용되어 하고자하는 일에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귀하는 꾸준히 정진하는 끈기와 집념을 보이는데 고독하고 마음에서 일종의 오기가 있어 성과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편안한 곳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나 태어난 날 가족(癸丑)은 음양상(陰陽)이라 소의 뿔처럼 날카로운 운세가 강하게 발전되어 2016년도는 조건이 무리 없이 잘 들어맞게 됩니다. ERP 정보관리사의 전망은 컴퍼니 관공서에는 ERP정보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예미 많이 진행이 되었고 현재는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에는 그다지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술에 배부를 수 가 없으므로 일단은 시험에 합격하고 다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실력자가 되도록 가능한 한 많은 생각말랑 접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란을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3일 (음 윤9월 11일) 강희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손의 자키면 상대가 백기 든다. 60년생 부터 이어가에 주목할 것. 72년생 정답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 84년생 공모전 등에 응하면 의외 결과 기대하라.

소 49년생 허점 손보는데 신경 써라. 61년생 왜 그기가 감을 인난 격이다. 73년생 불편해도 따질 것은 확실히 따져라. 85년생 짚이 꽂히는 이성과 마주한다.

호랑이 50년생 생각도 못한 호재가 있다. 62년생 사람 만으려면 작은 동로부터 열어라. 74년생 얄팍한 눈속임은 들통이 난다. 86년생 거도 꿈직하다는 것 경험할 수도.

토끼 51년생 딩 도올 뿐 조건 달지 말라. 63년생 흥분하면 반상제지 지바린다. 75년생 실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신경 써라. 87년생 기다리던 희소식 듣는다.

용 52년생 고가품 충동구매하면 후회한다. 64년생 살자는 스스로 지우도록 할 것. 76년생 권이 현실화 될 길이 열린다. 88년생 다듬어고 시작한 일은 순위~

뱀 53년생 장거리 외출은 삼가라. 65년생 투지 서두르면 손실이 따른다. 77년생 소원이 이뤄져 알콩달콩 행복한 하루~ 89년생 이에 커플은 갈림길에서 고민한다.

말 42년생 교만이 위기 부른다. 54년생 생계가 희희하나 희망도 꿈틀. 66년생 공하면 언제나 통한다. 78년생 각 한번 빠굿이 평생 짐이 되니 매사 신중할 것.

양 43년생 당근에 넘어가지 않도록~ 55년생 생각도 못한 수익이 생긴다. 67년생 세박 드문 일은 결실 갖게 지만 신경써라. 79년생 등용이 여의주를 꽂고 있는 격이다.

원숭이 44년생 지내가 희소식 전한다. 56년생 불청객 때문에 갑어지는 주물상~ 68년생 직장인은 구원투수로 나설 일이 생긴다. 80년생 삭금은 소개령 있으니 기대하라.

닭 45년생 단어 없는 곳에 투자 말라. 57년생 약속 어기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69년생 더 나은 삶을 위해선 혁신적 사고 필요~ 81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개 46년생 흔자는 벌시기 호전된다. 58년생 가족과 갈등요소 만들지 말라. 70년생 방심하면 약자에게 역공 당한다. 82년생 시작한 일 마무리 후 딴생각 할 것.

돼지 47년생 불어는 재치 있게 넘겨라. 59년생 막막한 생활에 긍정의 변화가 생긴다. 71년생 목표 더 키우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라. 83년생 도전정신 발휘하면 이롭다.

경험의 삼성 vs 상승세 넥센 '팽팽'

한국시리즈 7전 4선승제… 4일부터

프로야구 최고의 팀을 가리는 한국시리즈가 4일부터 시작된다. 정규 시즌 1위 삼성 라이온즈와 2위 넥센 히어로즈가 대구구장에서 1차전 맞대결을 펼친다.

삼성 라이온즈는 사상 첫 4년 연속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노린다. 넥센 히어로즈는 창단 7년 만의 첫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결국 정규시즌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두 팀이 한국시리즈에서 맞붙게 됐다. 정규시즌 막판에 5연패에 빠지며 힘겹게 1위 자리를 지킨 삼성과 마지막에 6연승을 달리며 삼성을 턱밑까지 추격한 넥센이었다.

올 시즌 최종 성적은 삼성이 78승3무47패에 승률 0.624, 넥센은 78승2무48패에 승률 0.619를 기록해 승수에서는 같았다. 그러나 넥센이 진 경기가 1경기 많았다. 상대전적을 보면 삼성이 8승1무7패로 근소하게 앞섰다.

박빙의 성적으로 정규시즌을 마친 양 팀이지만 삼성은 '최강팀'의 자존심을 걸고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삼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사상 최초로 4년 연속 정규시즌 우승을 기록한 삼성은 일찌감치 한국시리즈 직행을 결정한 후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기간에 휴식과 연습게임을 포함 훈련에 매진했다.

넥센은 2008년 창단 이후 첫 한국시리즈 진출이다. 정규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넥센은 준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LG 트윈스를 맞아 3승1패의 전적으로 한국시리즈 행을 결정했다. 지난해 정규시즌 3위에 올라 처음으로 가을 야구 맛을 본 넥센은 올해 막강 화력의 타선으로 트로피를 올리겠다는 각오다.

넥센은 올 시즌 가장 많은 팀 홈런(199개)을 기록해 리그 최고의 거포 군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서건창·박병호·강정호 등 대기록을 작성한 타선은 위협적이다. 프로야구 MVP 후보 5명 중 이 셋을 포함, 20승 투수 밴헤켄까지 4명을 올린 팀도 넥센이다. 아울러 김민성은 지난 31일 PO 4차전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3점 홈런을 포함, 무려 7타점을 몰아치며 최고의 타격감을 자랑했다. 거포들의 시리즈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한 넥센 히어로즈(위)와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한 삼성 라이온즈. /연합뉴스

반면 풍부한 경험과 우승맛을 알고 있는 삼성은 정규시즌에서 타율 1위(0.301), 평균자책점 2위(4.52)로 투-타의 균형과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한국시리즈는 7전4승제로 4일과 5일 1·2차전은 삼성의 홈구장인 대구구장에서 열린다. 7일과 8일 열리는 3·4차전은 넥센의 홈인 목동구장에서 펼쳐진다. 4경기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 경우 10일부터 12일까지 예정된 5·6·7차전은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김하늘기자 kmc0984@metroseoul.co.kr

이근호 – 남태희 나란히 멀티골 작렬

'슈틸리케호' 중동 원정 길 파란불

중동 원정을 앞둔 슈틸리케호에 이근호와 남태희가 희망의 골 소식을 전했다.

카타르 프로축구 스타스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근호(엘 자이시·사진 왼쪽)와 남태희(레퀴야·오른쪽)는 1일(한국시간) 치러진 정규리그 10라운드에서 나란히 2골씩 멀티골을 터뜨렸다.

이근호는 군 복무를 마치고 알 자이시에 입단했다. 알 샤하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이근호는 7경기만에 리그 데뷔골을 포함 2골을 뽑아 팀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슈틸리케호의 황태자로 떠오른 남태희 역시 이날 알 아라비를 상대로 2골 1도움으로 펄펄 날았다. 남태희는 정규리그 5·6호 골에 이어 코너킥으로 도움까지 기록하며 팀의 3-0 승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날 둘의 골 소식은 이동국(전북)과 김신욱(울산) 등 국내파 공격수들이 잇달아 부상으로 시즌을 접으며 공격수 공백을 우려했던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희망을 줬다. 특히 내년 1월 아시안컵을 앞둔 상황에서 시즌 마지막 평가전인 중동 원정 2경기에 나설 태극전사 명단이 3일 발표된다. 12월까지는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아시안컵 예비명단 50명을 제출해야 한다.

대표팀은 오는 14일과 18일에 각각 요르단, 이란과 잇달아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이번 중동 원정은 아시안컵을 대비한 마지막 점검 무대라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동국과 김신욱을 뽑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새 소속팀과 카타르 무대에 적응시간을 줬던 이근호를 이번 중동 원정에 합류시킬 공산이 크다. 이근호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손흥민(레버쿠젠), 이청용(볼턴), 기성용(스완지시티) 등과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어 대표팀 분위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와 함께 남태희 역시 큰 이변이 없는 한 대표팀 발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원정에 중동파 2인이 가세해 공격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철기자

'새신부' 박인비 LPGA 3승 샷

타이완 챔피언십 우승… 루이스와 2타 차

박인비(사진)가 시즌 세 번째이자 결혼 후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는 2일 대만 타이페이 미라마 골프클럽(파72·6412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푸본 타이완 챔피언십(총 상금 2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적어내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세계랭킹 2위인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는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쳐 2타 차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박인비는 지난 6월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과 8월 LPGA 웨그먼스 챔피언십을 제패한 데 이어 타이완 챔피언십까지 우승을 차지해 시즌 3승을 기록했다. LPGA 투어 통산 12승 째다.

박인비는 같은 조에 속한 2위 스테이시 루이스에 4타 앞선 채 이날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다. 초반부터 스테이시 루이스의 맹추격이 시작됐다.

박인비가 8, 9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해 2위와의 격차가 1타 차까지 좁혀졌다.

경기 막판까지 스테이시 루이스와의 1타 차 경쟁이 이어졌다. 스테이시 루이스가 16번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앞선 보기 실수를 만회, 다시 1타 차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박인비는 17번 홀에서 버디를 성공시켰다. 2타 차로 격차를 벌린 박인비는 18번 홀을 파로 지키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김학철기자

프로축구 전적 (2일)

서울	0	1	전북
상주	2	3	부산
인천	1	1	경남

프로농구 전적 (2일)

팀	1Q	2Q	3Q	4Q	합계
모비스	13	18	22	21	81
전자랜드	13	18	22	21	72
LG	8	18	18	17	61
KT	14	12	20	10	56
삼성	28	19	15	16	78
KCC	17	24	16	18	75

프로배구 전적 (2일)

한국전력	3	2	삼성화재
현대건설	1	3	인삼공사

HNT 하나투어
H Wedding
그여자, 그남자가 선택한 최고의 결혼준비!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찾아 오시는길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일시 2014년 11월 15일(토요일)~11월 16일(일요일)
장소 호림아트센터(압구정 로데오역 도보 5분거리)
시간 오전 10:00~오후 7:00
상담문의 02)2127-1234